

# 인인화학

人 人 和 樂 | 2021 Spring Vol.32



특별한 이야기 <공유>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된다.

-생태주제[리]-

표지 일러스트: 디아人脉문화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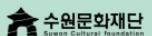
戶戶富實 人人和樂

호호부실 인인화학

'김집마다 부유해지고 사람마다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

-점조-

[www.swcf.or.kr](http://www.swcf.or.kr)



SUWON CULTURE & ARTS MAGAZINE

# 인인화락

人 人 和 樂 | 2021 Spring Vol.32

# CONTENTS

특별한 이야기 <공유>

너와 나, 우리의 일상

**06p 인트로**

비움을 통한 아름다운 공생 공유 문화의 의미

**26p 문화탐방 1**

재단이 맞이할 네 번의 계절, 너에게 계절을 보낸다

**08p 수원 탐구**

사람과 공간 그리고 마을을 잇다 '고래등 24시 마을공유소'

**32p 문화탐방 2**

코로나를 대하는 사람들\_오손도손, 앙상블디그, 만물작업소

**12p 소소한 만남**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추진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배'

**36p 즐거운 수다 1**

시대의 한복판에서 마주친 가장 어두운 이야기\_작가 이주영

**16p 공간과 사물**

함께 살아가는 '같이'의 가치, 공유하는 수원

**40p 즐거운 수다 2**

모두가 주인공인 미디어 세상을 꿈꾸다\_수원미디어센터

**22p 자아의 발견**

나의 '관계' 운용 능력은 얼마나 될까?

**44p 예술 인문학**

수원을 향한 애정을 담다\_김훈동 시집『틈이 날 살렸다』

**46p 수원 나들이**

햇살 좋은 오늘, 작은 책방이 주는 소통과 위로

수원문화예술매거진

인인화락 人和樂

2021 spring Vol.32

통권 32호(비매품)

발행 2021년 3월 31일

등록번호 수원 사00017

등록일 2012년 11월 14일

등록번호 ISSN 2287-7479

발행주기 계간(연 4회)

발행인 김영배 편집인 최용진 편집기획 김민주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주소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전화 031-290-3600 홈페이지 www.swcf.or.kr

기획·디자인·제작 더에이치

『인인화락』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52p 칼럼**

부캐와 멀티캐로 대중을 사로잡다

**56p 잡학사전**

카페 컵의 힘

**60p 재단 소식**

발행주기 계간(연 4회)

**64p 싹틔움 소식**

수원미디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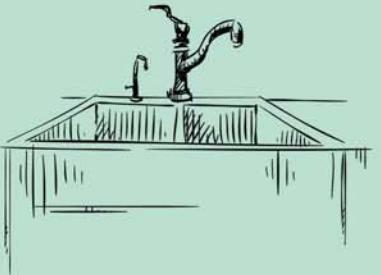
**65p 독자의 편지**

수원미디어센터



계간지『인인화락』은  
웹진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66p SWCF 톡톡**



# Shared Culture



## 비움을 통한 아름다운 공생 공유 문화의 의미

공동주택, 셰어하우스 등 공유 공간, 공유 문화의 대두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공유 공간은 독점이 아닌 소통에서 새로운 기회와 삶을 찾는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눔'을 중시했던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다. 새삼스럽게 '나눔'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 요즘 들어 공유 경제, 공유 하우스, 공유 오피스 등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사실 이런 공유 문화는 최근 들어 일어난 현상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에서부터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과거 공동체 문화에서 '사랑방' 같은 주거공간은 물론이고 논, 밭, 우물 등의 일터도 공유되므로 생존에 필요한 문제들이 두루 보장된 편이었다. 기본적 생존은 물론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화생활도 주민들끼리 함께 누렸다. 전통 두레나 품앗이 등 노동이라는 일 문화를 비롯해 놀이터 문화나 종교문화, 의례문화도 공동체 문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의 공동체는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이 동거하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가사일 뿐 아니라 육아와 교육 등을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어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공동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공동체 문화에 대한 개념이 약해졌지만, 21세기에 들어 다시금 공유 문화의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은 현대사회로부터 큰 삭막함을 느끼며, 커뮤니티나 서로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경기 불황이나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악화 현상도 있지만, 공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의 공유 문화는 우리나라보다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공유 공간과 공유 하우스, 공유 시스템 등을 잘 활용하면 도심 또는 도시근교에 편리하고 아늑한 정주 공간을 재생시키고, 각박한 도시 환경 속에서 공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사람 사이의 교류를 회복하고, 이웃을 이해하며 함께 생활공동체로 살아가는 '배려'와 '나눔'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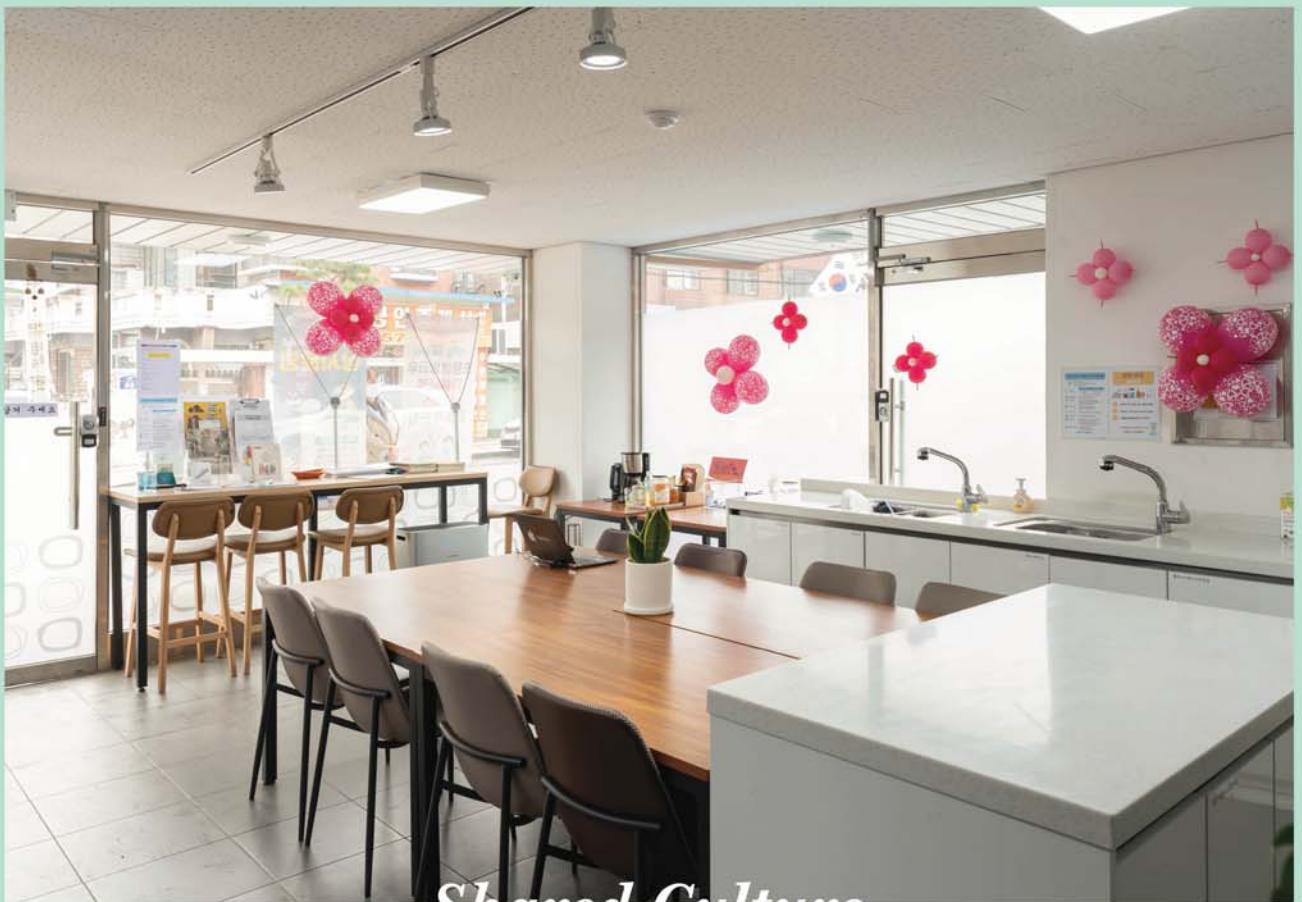
정다운 이웃끼리, 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모여 살고자 생각하는 것은 즐거운 상상이다. 반가운 사람을 자주 보는 것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들과 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혁가족 사회의 고립감을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

Writer 백미진  
Photo 조병우  
Illustrator 정길영

## 사람과 공간 그리고 마을을 잇다

고래등 24시 마을공유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멀어지는 이때,  
외로운 이웃들이 정을 나누며 사람과 마을을 잇는 마을공유소가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Shared Culture*



## 많은 작업자가 함께 만든 문화 공유의 터

수원 고등동에 문화 공유로 숨을 불어넣기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경기도청 이전을 앞두고 고등동·매산동로3가·교동·중동 등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고 있어 경기도와 수원시,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수원시의 균현대사를 간직한 경기도청 주변의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펼친다.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전, 이를 이끌어 나갈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임시 거점공간인 '고래동 24시 마을공유소'가 사람과 마을을 잇고 공유 경제 마을을 향해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주민 공모를 통해 이름 붙은 '고래동' 명칭은 고래의 등처럼 생겼다는 고등(高等) 동의 유래에서 비롯됐다. 고래동처럼 넓고 편안하며 안정감 있는 작명으로 누구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바라는 주민의 염원이 담겼다.

고래동 24시 마을공유소의 운영 주체는 큰집마을사랑협동조합이다. 그들은 공유 냉장고와 작은도서관, 공유공구함, 공유부엌, 디지털 앤범화사업 등 주요 5대 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지역주민 주체 발굴 및 조직화를 이루고 지역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한다.

특히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24곳의 공유 냉장고 중 한 대가 놓여 있는 고래동 24시 마을공유소는 '우리'와 '마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다. 협의회가 2018년 1월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 설치한 공유 냉장고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에 유기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랑·나눔·공유 프로젝트'로 지난해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나눔·채움이 함께하는 24시 공유 공간

큰집마을사랑협동조합 회원들은 채소를 비롯한 식자재, 과일, 직접 만든 반찬류 등 밤새 공유 냉장고에 들어온 먹거리를 소분해 품목별로 표시하고 다시 넣어놓는다. 공유부엌 요리교실에서 만든 음식과 제과제빵 교육은 공유 냉장고 정기 후원으로 이어지고, 다채로운 먹거리와 정성은 일 평균 20~30명의 이웃을 공유 공간으로 연결한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김태인 센터장은 "지역에 노인인구,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이 많지만, 생활 SOC 건물은 전혀 없다. 그래서 공유 공간의 키워드는 먹거리와 돌봄으로 설정했다"고 한다.

일하다 텁을 쓸 일이 생겨 공구를 빌릴 수 있는 마을공유소를 찾았던 청년은

이곳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놀라며 "공유 냉장고, 도서관 등 주민에게 공간을 공유하는 시설이 우리 동네에는 없다."고 부러워했다.

공유공구함에는 톱, 드라이버, 니퍼, 렌치 등 다양한 공구를 갖추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에는 마을주민이 기부한 2,000권을 포함해 총 2,500권의 도서가 소장돼 있다. 최근에는 (주)소셜코어, 라온경제교육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점자 동화 코너'를 추가했다. 그림책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 일부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아름학교(영통구)와 시각장애인 아동 가정에 다시 기부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주민학습동아리도 운영된다. 바느질 모임을 운영하는 김명옥 강사는 "치매가 심해진 친정엄마를 모시고 바느질 교실에 참여하겠다는 이웃에게 전직 교사였던 한 참여자가 치매 예방 운동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세대 간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강사는 모임을 동아리 활동으로, 협동조합으로 키워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마을공유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래동 24시 마을공유소  
전화 031-231-3326  
주소 팔달구 고화로 70, 1층(고등동 29-4)  
영업시간 평일 9:00~18:00

## mini Interview



윤완기  
큰집마을사랑협동조합 이사장



장동현  
큰집마을사랑협동조합 상임이사



김태인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Q. 고래동 24시 마을공유소를 운영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끼나요?

공간의 문을 두드리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들과 원주민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교류하니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공유 냉장고 운영을 담당하는데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다만 한정된 음식 수량에 개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적어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출퇴근할 때마다 주민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 인사할 때 이웃 간의 정이 두터워진 것 같아 좋습니다.

Q. 어떤 분들이 마을공유소를 즐겨 찾나요?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동네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없어 주민들이 공유 공간이 생긴다는 걸 굉장히 반겼습니다. 아이·엄마·학생·노인·다문화가정 등 주민 모두 애용하는 공간입니다. 주로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이 공간은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가장 접점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을 통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임시 거점공간을 운영하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Q. 고래동 24시 마을공유소에서 가장 중점을 둔 운영의 방향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역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의 역량을 키워 마을을 떠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공간의 이름과 같이 고래동처럼 편안하게 주민들을 품는 곳이 됐으면 합니다. 주민들 또한 애써주시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만남과 교류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니 감싸주는 마음도 생기죠. 올해 하반기 이후에 마련되는 신축 거점공간도 주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주민 모임에서 시작된

### 큰집마을사랑협동조합

고래동 24시 마을공유소를 만들어 가고 있는 '큰집마을사랑협동조합'은 2019년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주관한 도시재생대학 수료생들로 구성된 주민들이다. 이들은 센터의 지원으로 2020년 10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집수리·봉사단 교육, 공유부엌을 활용한 제과제빵 교육, 청년문화기획자 양성과정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주민학습공동체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공유 경제를 통해 지역의 공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큰집마을사랑협동조합은 주민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0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서 수원시 최초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장동현 상임이사는 "올해는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과 장애인·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관계자는 "복지·문화시설이 전무후무한 고등동에서 마을공유소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어르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모범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큰집마을사랑 협동조합과 고래동 24시 마을공유소를 통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고등동 마을주민의 활기찬 모습을 그려본다.▶



##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추진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길영배

수원의 오랜 원도심이자 화성행궁을 품고 있는 행궁동을 터 삼아 수원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도시로서의 수원과 문화예술에 있어 재단의 역할 등 수원문화재단 길영배 대표를 만나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연결고리에 대해 들었다.

### Q. 수원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차별점 및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먼저 수원의 차별점을 꼽자면 수원시는 자원봉사가 가장 활발한 도시 중 하나로 30만 명이 넘게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지, 보건, 교육, 문화, 예술, 환경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기도 하지만, 평생학습도시이기도 한 수원은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수원의 자랑이자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수원화성으로 이미 문화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와 생활문화인, 문화예술동호회, 전문 예술인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 자발적인 문화도시에 가장 적합한 도시입니다.

### Q 대표님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우리 재단은 2018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도시들이 많지만, 수원은 그 이전부터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왔습니다. 전 국민의 축제로 자리 잡은 수원화성문화제만해도 1964년을 시작으로 벌써 6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게 전통 있는 지역축제를 가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재단은 이런 축제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이 주체로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문화의 중심을 시민에게 두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으로 상징되는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전통이라는 토대 위에 시민의 일상과 도시문제를 논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 수원의 특례시 승격과 함께 재단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 특례시로서 자격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1년 우리 재단이 주력하는 방향은 크게 지역관광개발과 문화도시입니다. 올해 차별화된 인문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생태 문화체험 관련 제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제3차 문화예비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 Q 2022년 법정문화도시 추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단은 '도시다양성, 지속가능성, 문화민주주의'라는 비전과 핵심가치를 우선으로 6월 법정문화도시 지정신청을 준비해 22년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1년 동안 특례시적인 행정처리와 제도를 구축한다면, 재단은 특례시다운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자존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문화자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인정한 법정문화도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많은 문화예술 사업이 중단 혹은 취소되었는데, 재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누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돼 많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예술 축제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소규모로 축소해서라도 진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생활에 즐거움을 주고, 힐링할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올해 가장 중점으로 '힐링'과 '휴식'을 문화 키워드로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단은 온라인, 언택트 사업 등을 통해 행사, 공연 등을 멈추지 않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중 <베란다 1 열> 콘서트로 자택 내에서 직접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찾아가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영상(온라인으로 만나는 화성행궁 랜선여행,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한 오페라 하이라이트 영상화 사업, 숲속의 랜선파티,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리로 나온 예술 등)을 통해 예술인들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고, 시민들에게는 영상으로나마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축제, 음악회 등 언택트 영상을 비롯해 작년에도 인기가 많았던 비대면 키트를 제작, 발송해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플랫폼 페이지를 제작해 언택트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며,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Q 경기도청의 이전으로 수원역 부근까지 슬럼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재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현재 문화적인 공간이 행궁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많은 문화예술인이 몰려 있기도 하지만, 재단은 행궁동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원 도청 부근까지 연계되도록 넓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부국원, 구 수원문화원 등을 비롯해 근대문화재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과 유무형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만들 계획입니다. 행궁동에도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공방들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찾으며 조금씩 변화됐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수원 다른 지역 까지 확장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수원문화재단의 대표로서, 어떤 재단으로 이끌어 가고 싶으신가요?**

지역의 문화예술에 힘쓰는 예술가를 지원하고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교로서 재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은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 사업, 유망예술가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브릿지예술교육, 수원SK아트리움의 교육사업, 시민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예술활동 폭을 확장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향유기회 또한 넓히고 있으며,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연극축제 등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주도, 시민 중심의 축제 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 재단 식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잠재력을 발굴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조직에 대한 애사심도, 자기 일에 자신감도 생깁니다. 참여적인 부분과 열정이 그런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수원연극축제, 수원화성문화제 등도 전 국민 축제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터지만 신나는 놀이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재단 식구들하고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Q 끝으로 이번 인인화학의 주제가 '공유'인 만큼 문화 공유와 관련해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공유가 서로에 대한 나눔,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 역시 나눔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공연을 통해 함께하는 것을 알리며, 외형적으로는 저희가 가진 시설물들을 최대한 개방해 더 많이 시민들과 나누겠습니다. 정말 이 공간을 써도 될까 망설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있는 공간을 폭넓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라는 것 자체도 공유 정신과 함께 녹아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공개하고 알려드리면서,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은 그것에 발맞추어 어떤 재정적인 것, 제도적인 것 공간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진실한 문화예술의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재단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다가서고, 그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진정한 공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영배 대표이사

길영배 대표이사는 1987년 공직에 입문해 2013년 권선1동장과 시 행정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을 지냈다. 2019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후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수원연극축제'의 무대를 경기상상캠퍼스로 옮겨 공연 대중화에 기여했으며, '수원 문화재 여행'을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인정받게 하는 등 시의 예술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공유 사회는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쉐어링,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미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숙소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와  
자동차를 공유하는 '우버(Uber)',  
시간제로 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집카' 등이 있다. 공유경제는 집,  
책, 자동차 등 다양한 재화의 공유는  
물론이고 재능 및 지적재산의

공유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원에서도 공간 공유과 물품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공유  
문화를 만날 수 있다.

## 01:

###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생활문화 플랫폼: 경기상상캠퍼스, 청년바람지대, 공공한옥

먼저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경기상상캠퍼스는 도심 속 문화 휴식공간인 모두의 숲,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인 삶의 학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작 공간 미래의 캠퍼스, 문화 공유지대 생활문화 플랫폼을 비전으로 한 놀이와 일, 학습이 선순환되는 복합 문화 놀이터로서의 문화 공간이다. 모두가 즐기는 생활문화 공간 생활1980, 경기생활문화센터 생생1990, 창업과 창작을 실험하는 공유지대 청년1981, 융복합 문화공유 플랫폼 공간1986, 누구에게나 열린 메이커스 공간 공작1967, 모든 세대를 위한 배움터 교육1964, 디자인 특화공간 디자인1978 등 7개의 공간이 있다. 또 환경을 생각하는 업사이클플라자도 있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 경기상상캠퍼스

주소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서둔동 103-25)

문의 031-296-1980(주차 100대 가능)

건물 화요일~일요일 9:00~18:00 \*월요일(공휴일 제외),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산책로 3월~11월 5:30~19:30 / 12월~2월 5:30~17:30 \*야외공간은 휴관일 관계없이 이용 가능

경기상상캠퍼스 sscampus.kr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www.ggcycle.or.kr



상시로 면접 정장을 대여할 수 있는 청나래 서비스

또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일과 쉼, 배움까지 경험하는 열린 공간이다. 바람지대는 대강당 가지가지홀을 비롯해 세미나실, 공유카페, 코워킹룸을 개방해왔는데, (예비)청년창업자들은 이곳을 부담 없는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상시로 면접 정장을 대여할 수 있는 청나래 서비스와 빠꼼이NCS인적성 강의,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진로상담과 취업지원 멘토링 등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프라인 공간은 잠시 닫혔지만, 여전히 언택트로 바람지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진행된다.

####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

주소 팔달구 행궁로 84번길 23

문의 031-248-9080~79

#### 공공한옥과 수원전통문화관

한옥기술전시관

화홍사랑채

주소 팔달구 정조로885번길

주소 팔달구 수원천로 377

문의 031-247-9370

문의 031-256-5610

화서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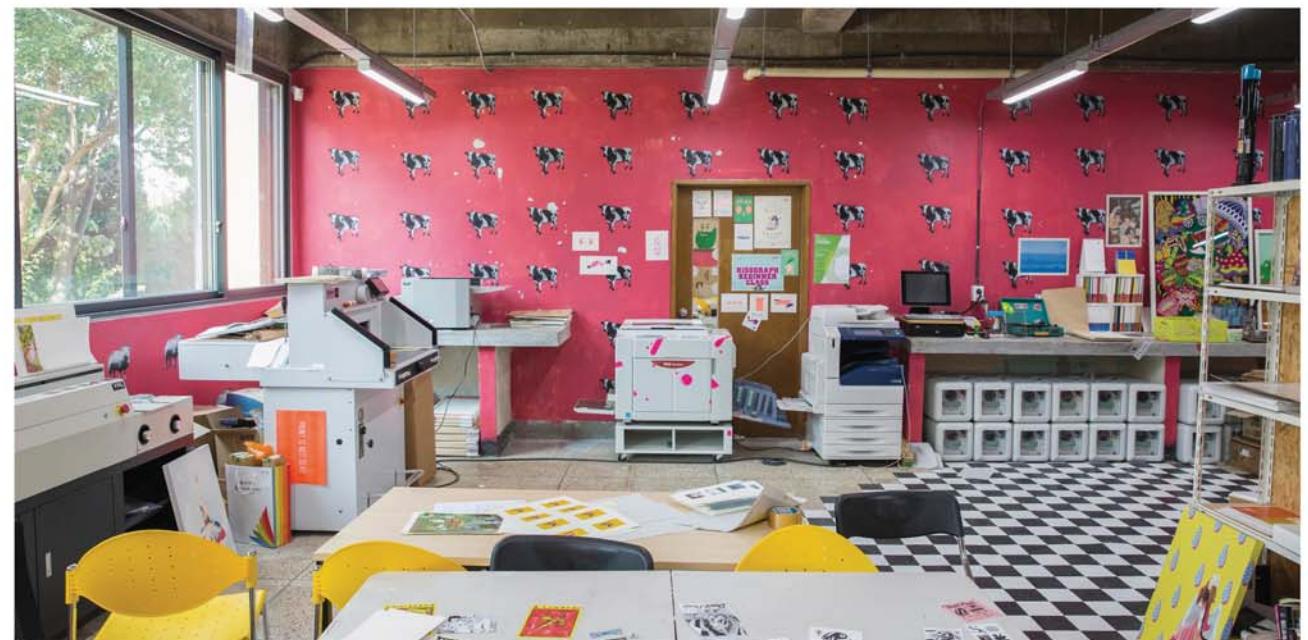
수원전통문화관

주소 팔달구 화서문로 19

주소 팔달구 장안동 18-11

문의 031-247-9806

문의 031-247-9366~9



그래픽 디자인, 출판 디자인, 영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랩



조용한 길가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화서사랑채 풍경

## 02:

물품·공간·교통 등 다양한 '공유 수원':  
어린이 창작 공간, 가정용 공구, 장난감, 공유 킥보드까지

짐잖고 정숙해야만 할 것 같은 도서관에도 '메이커 문화'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와 같은 동향에 발맞추어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창작 공간 '모야'를 도입해 운영한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7세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료와 도구가 함께하는 창작 공간이다. '모야'에서는 "이건 뭐야? 저건 왜 그래?"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을 아이들 스스로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보장하고, 무엇이든 만 들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더불어 슬기샘어린이도서관도 트윈스페이스를 조성했다. 씨프프로그램, 도서문화재단 씨앗이 주관하는 'Space T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조성된 슬기샘어린이도서관의 트윈스페이스는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도서관을 자주 찾지 않는 트윈세대에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일상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 ▷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일시 연간 상시 운영 주소 영통구 매봉로 10 바른샘어린이도서관 2층

요금 이용료 없음 대상 7세 이상 및 초등학생 전 학년

문의 031-216-8132 홈페이지 [www.suwonlib.go.kr/bkid](http://www.suwonlib.go.kr/bkid)

### ▷ 슬기샘어린이도서관

일시 7.1(목) 예정~지속 장소 슬기샘어린이도서관 3층 요금 무료 대상 12세~16세

문의 031-247-8774 홈페이지 [www.suwonlib.go.kr/skid](http://www.suwonlib.go.kr/skid)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의 어린이 창작 공간 작업실 '모야'



커뮤니티 공간, 생활 직점샵 <蹶끔>의 공유 키친

또 24개의 공유냉장고와 회의실, 강당, 북카페, 시민농장·텃밭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공유 서비스'도 있다. 수원은 시청·구청·주민센터·도서관 등 95개 소 190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교양 도서, 잡지 등을 볼 수 있는 북카페는 권선·팔달·영통구청에서 운영한다. 당수·천천동 시민 농장과 물향기·두레뜰·서호꽃뫼·청소년문화공원 텃밭은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교회와 손잡고 '주차장 공유사업'과 자동차를 30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정해진 주차장(73개소)에 반납하는 '교통 공유'도 진행한다. '지식재능 공유'는 사진 공유(<http://photo.suwon.go.kr>), 공공와이파이, 무료법률상담,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등이다. 또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공유경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가 운영하는 '공유서비스'는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비교적 저렴한 이용료로 자전거부터 킥보드까지 공유로 즐길 수 있다. 타조 공유 자전거는 수원 시내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공원 등 주요 지점 6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쿠터부터 디어, 플라워로드, 알파카, 씽씽 등 다양한 공유 킥보드도 있는데, 대여 장소와 비용이 조금씩 다르다. 단, 올해 4월부터 원동기면허 이상 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수원은 다양한 공유 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새로운 공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

###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

#### 타조 공유 자전거(TAZO) 앱(어플) 설치 후 이용

\*이용료 1회 20분당 500원, 한 달 이용권 1만 원(변동될 수 있음)

#### 지쿠터, 디어, 플라워로드, 알파카 앱(어플) 설치 후 이용

\*요금 개별 상이, 회원가입 필요, 안전 준수사항 필독



시민들이 텃밭을 체험할 수 있는 수원 탑동시민농장

수원시의 공유 서비스는 물품·공간·교통·지식재능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에 이른다. 특히 가정용 공구, 장난감 공유 서비스가 인기가 좋다. 가정용 공구 공유는 수원시 곳곳에 있는 '공구 도서관'에서 전동 드릴, 절단기, 망치, 나무톱 등을 저렴한 비용(500~2,000원)으로 빌려 쓰는 것이다.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도서관은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가 좋다. 회비 1만 원을 내고 1년 동안 장난감을 빌릴 수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만 5세 이하 자녀(장애아 등은 만 12세 이하)를 둔 수원시민은 누구나 회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원점, 권선점, 호매실점, 정자점 등 9곳이 있다. 이 같은 물품 공유 서비스는 재활의료장비·공영자전거·맘음우산·사무기기·도서 대여 등이 있다.

#### 온라인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 수원' 이용 안내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정보·재정·경제·'공유 수원' 게시판 클릭·다양한 공유 서비스 이용



공유 킥보드 알파카(구. 고고씽)



수원 공유 자전거 타조(TAZO)



## 체크리스트로 알아보는 공존지수

가족이든, 학교든, 사회든 세상은 나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  
나와 다른 성격의 타인과 매번 부딪히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다. 이 같은 능력을 알아보는 공존지수(NQ: Network Quotient)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공존지수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높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 Check!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당신의 공존지수를 확인해 보세요.

- ① – 나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친구가 있다.  
 3명 이상(10)  
 1, 2명(5)  
 없다(0)
- ⑤ –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하거나 기록해두는 편이다.  
 그렇다(5)  
 보통이다(3)  
 아니다(0)
- ⑩ – 나는 상대방이 장황하게 설명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말을 끊은 적이 있다.  
 그렇다(0)  
 아니다(5)
- ② – 로또복권에 당첨되어도  
배 아파하지 않을 친구가 있다.  
 그렇다(5)  
 아니다(0)
- ⑥ – 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  
먼저 계산대로 나가는 편이다.  
 그렇다(5)  
 보통이다(3)  
 아니다(0)
- ⑪ –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일이 끝난 후  
먼저 인사를 건네는 편이다.  
 그렇다(5)  
 아니다(0)
- ③ – 내가 세상에 없을 때  
내 가족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  
 그렇다(10)  
 아니다(0)
- ⑦ – 나는 아무리 바빠도 경조사는  
빠지지 않고 행기는 편이다.  
 그렇다(5)  
 보통이다(3)  
 아니다(0)
- ⑫ –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다.  
 그렇다(5)  
 아니다(0)
- ④ – 나는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렇다(5)  
 보통이다(3)  
 아니다(0)
- ⑧ – 나는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축하해 준 적이 있다.  
 그렇다(5)  
 아니다(0)
- ⑯ – 나는 회식이나 모임으로  
시간이 늦었을 때 다른 사람을  
챙기는 편이다.  
 매번 그렇다(10)  
 가끔 그렇다(5)  
 그런 적이 없다(0)
- ⑨ –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하는 편이다.  
 그렇다(5)  
 아니다(0)

## Result

나의 공존지수는? 결과보기

70점 이상	40점 이상	20점 이상	20점 미만
완벽한 인싸 타입	어디든 적응하는 딱풀 타입	나에게 집중하는 나르시스 타입	세상의 중심은 나, 유아독존 타입
놀립습니다! 당신의 공존지수는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사회 어느 조직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일원으로서 매우 잘 적응하 는 편입니다만,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서는 공존지수를 다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한다면 능력도 딱풀에서 초강력 접착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과 애정을 다른 이에게 조금만 돌린다면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집 밖을 나와 세상으로 나가세요. 세상은 당신의 생각보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식물과  
관계의  
온  
도

사람을 대하는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너무 모자라도, 지나치면 안 되는 '적당함'의 온도가 필요하다.

식물에 따라 별과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적어도 되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 관계에 따라 온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 재단이 맞이할 네 번의 계절

### 너에게 계절을 보낸다



2021년에도 어김없이 봄이 시작된다.

재단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고 네 번의 계절도 그렇게 다가온다.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재단은 어떤 계절을 담아 당신에게 보낼까.

※ 해당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 SPRING

### 봄, 다시금 시작

#### 뮤지컬 <신비로운 여신수업>

제주 신화 속 신비로운 배경과 신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3Layered 방식의 훌로그램 기술과 프로젝션 맵핑, 마술과 플라잉쇼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접목된 이 공연은 2020년 11월 초연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기존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훌로그램, 미디어파사드, 씨르 휠서커스, 인라인 슬라럼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대중들에게 새로운 공연의 패러다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기에 이 공연만큼 좋은 공연은 없을 것 같다. 공연이 궁금하다면 공연 예약부터 해볼까요?

일시 5.14(금) 19:30 / 5.15(토) 17: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 아트로 한바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에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주는 코로나 블루.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이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SK아트리움 야외 공연장과 공원을 산책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관람하는 공간으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진다. 야외공간에서 관객 밀집도를 낮추고 관람하는 아트로 한 바퀴는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과 예술인에게 소소한 힐링을 선사한다.

일시 4월~10월

장소 수원SK아트리움



#### <쇼그맨 2>

2018년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던 <쇼그맨>.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쇼그맨 2>로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을 찾는다.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큰 활약한 펼친 박성호, 김재욱, 김원효, 이종훈, 정범균이 출연하여 5인 5색의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특히 개그 경력 20년 차 베테랑 개그맨 박성호를 중심으로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웃음 폭탄을 선사하여 관람객들의 배꼽을 춤칠 예정이다. 공연은 개그를 포함하여 마술, 노래, 연기, 춤, 레이저 쇼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의 관람객뿐만 아니라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관람객들에게도 즐거운 공연이 될 것이다.

일시 5.29(토) 15:00 / 19: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 '뷰티풀 데이즈' <살롱 드 아트리움>

1화. 별을 닦다, 빈센트 반 고흐

2화. 베토벤 프리즈, 클림트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어느 때보다 도 현장에서 느끼는 공연의 감동이 그리워지는 올봄! 2021 수원SK아트리움 「문화가 있는 날」 시리즈 '뷰티풀 데이즈'의 브런치공연, <살롱 드 아트리움>이 첫 시작을 알린다. 미디어아트로 실감 나게 재구성된 불후의 명작들이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공연장을 수놓는다. 첫 번째 시간으로 별을 닦고 싶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가 찾아온다. 그의 900여 점의 작품 중 7가지의 대표 작품과 더불어 동생 테오와 나눈 편지를 통해 그의 삶을 만난다. 두 번째 시간은 색채 미술사 '클림트'와 음악 황제 '베토벤'의 운명적인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클림트와 베토벤은 어떻게 연결된 것일까?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 속으로 특별한 초대장을 건넨다.

일시 4.27(화) / 5.25(화) 11: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 SUMMER

여름,  
더위의 서막



## 2021 수원 문화재 애행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는, 밤빛 품은 성곽도시 수원 문화재 애행! 수원화성에 담긴 과거와 현재, 기억의 흐름 따라 전하는 8가지 이야기, 80(夜)도 준비되어 있다. '수원 문화재 애행'이 속삭이는 8월의 여름밤, 화성행궁 일원에서 문화재가 전하는 밤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는 걸 추천한다.

일시 8.13(금)~8.15(일)

장소 화성행궁 일원

##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 <미스테리우스>

한여름, 우리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궈 줄 신통방 통한 전통퓨전 퍼포먼스가 찾아온다. 바로 2021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젝트 첫 번째 <미스테리우스>다. 아름다운 전통악기의 소리와 파워풀한 랩핑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비보이'의 몸짓이 더해져 미스테리우스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전통과 현대의 예술적 요소들이 서비스럽게 결합된 뜨거운 공연! 신통하다 못해 묘하며 서비스러운 시간 속으로 뜨거운 휴가를 만끽해봄이 어떨까?

일시 8.14(토) 14:00, 17: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 에코부코(EcoBooko) 페스티벌

환경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환경그림책 전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한다. 환경특화프로그램은 자연물과 재활용, 자투리 재료를 사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연 보호를 실천하면서 환경보호를 배우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 6월 중

장소 지혜샘어린이도서관

## 창작 뮤지컬 <행궁동 사람들>

2021년 문화공감 방방곡곡 기획제작 프로그램 선정작 '행궁동 사람들'. 수원 왕갈비 통닭만큼 유명한 왕의 골목 행궁동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즐겁고 유쾌하게 풀어낸 창작 뮤지컬이다. 정조 대왕에게 성은을 입었을 때부터 내려온 가업인 세탁소를 30년째 운영하는 상인회장 정씨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오는데, 과연 행궁동 끈대 터줏대감 정씨는 임금님표 세탁소를 지킬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수원SK아트리움에서 만나요!

일시 6.11(금) 19:30, 6.12(토) 17:00

6.18(금) 19:30, 6.19(일) 14:00, 17: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 수원전통문화관 기획공연

### <2021 명인열전>

전통한옥에서 고즈넉하게 울려 퍼지는 우리 가락 판소리.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명인열전>이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올해의 주제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 네마당(적벽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으로 각각의 소리를 대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명창들이 출연한다.

일시 8월~10월 중 4회

장소 수원전통문화관 예절교육관

# AUTUMN

가을,  
지는 게 아니다



## 수원재즈페스티벌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국내 최대 호수 규모를 자랑하는 수원 대표 관광명소 '광교호수공원'의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즈페스티벌'. 푸른 잔디밭에 듯자리를 깔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풍 같은 축제! 정통재즈 뿐만 아니라 재즈+타 장르의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통한 다채로운 분위기의 음악을 경험하며, 일상을 떠나 휴식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일시 9.10(금)~9.11(토)

장소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 스포츠클라이밍장

## '뷰티풀 데이즈' <살롱 드 아트리움>

3화. 빛을 따라가는 여정, 클로드 모네

4화. 이중섭, 그림과 편지

5화. Jazz로 만나는 양리 마티스

'미디어아트'로 살아 숨 쉬는 명작이자 고품격 음악의 하모니! <살롱 드 아트리움>의 하반기 시리즈가 가을을 밝힌다. 세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빛의 화가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 자연의 색감이 화폭 속에 그대로 투영된 그의 작품들과 러시아 대자연이 담긴 음악들이 한데 어우러진다. 네 번째 시간은 한국의 대표 작가 '이중섭'이다. 2021년 흰 소의 해를 맞아 그와 만남은 더욱 특별하다. 무엇보다 감성 어린 편지로 사랑을 속삭인 이중섭과 아내와의 이야기가 클래식 선율과 함께 전해질 예정이다. 마지막 시간은 20세기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히는 트렌디함의 대표주자, '양리 마티스'를 만나본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새로운 컷아웃 예술세계로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준 그! Jazz의 음색에 실려 <살롱 드 아트리움>의 대단원에 이른 여정이 마무리된다.

일시 9.28(화) / 10.26(화) / 11.23(화) 11: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 수원연극축제 '숲속의 파티'

1996년 시작된 이후 24회를 맞이하는 올해 수원연극축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문화재단과 탑동 시민농장 두 곳에서 분산 개최된다. '울창한 숲과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예술축제'를 지향하는 수원연극축제의 세 번째 '숲속의 파티'에서는 일상적 공간인 도심을 벗어나 경기상상캠퍼스와 시민농장의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한 18편의 장소 특정적 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마법 같은 3일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관내 극단이 각자의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수원연극주간'이 연극축제 한주 앞서 시작된다.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2주간 수원의 여러 공연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10편의 공연을 통해 수원의 연극을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일시 10.1(금)~10.3(일)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및 탑동 시민농장



##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1위, '라흐마니노프'가 들려주는 감동의 선율이 뮤지컬로 찾아온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라흐마니노프의 멈춰버린 3년! 그 숨겨진 이야기가 비밀스럽게 전해진다. 라흐마니노프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울려 퍼져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지금,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넬 예정이다. 제1회 한국뮤지컬어워즈 작곡 및 음악감독상 수상과 더불어 관객 평점 만점에 예매율 1위를 독차지했던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클래식과 뮤지컬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뮤지컬 <라흐마니노프>가 수원SK아트리움에서 감동의 선율을 노래한다.

일시 10.30(토) 14:00, 18: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 제58회 수원화성문화제

수원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원화성문화제>가 찾아온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서 3일간 펼쳐지는 축제로 다채로운 전시,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정조대왕의 효심, 수원화성 축성 등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수원화성문화제>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일시 10.8(금)~10.10(일)

장소 수원화성 일원

# WINTER

겨울,  
추위가 선사하는 선물



## 방방곡곡 문화공감 <김용걸&김보람의 Bolero>

가장 핫한 안무가들의 하모니, 1세대 스타 발레리노 '김용걸'과 K-흥 대표주자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대표 '김보람'이 한 무대에 오른다. 그들의 몸짓으로 채색될 작품은 1928년 라벨이 발표한 'Bolero'!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라벨의 '볼레로' 음악에 현대적 안무를 덧입혀 새로운 색깔의 예술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차이코프스키와 생상 등의 음악에 여러 무용수의 기량이 더해져 눈과 귀로 즐기는 예술적 즐거움에 매료될 것이다.

일시 11.27(토) 17: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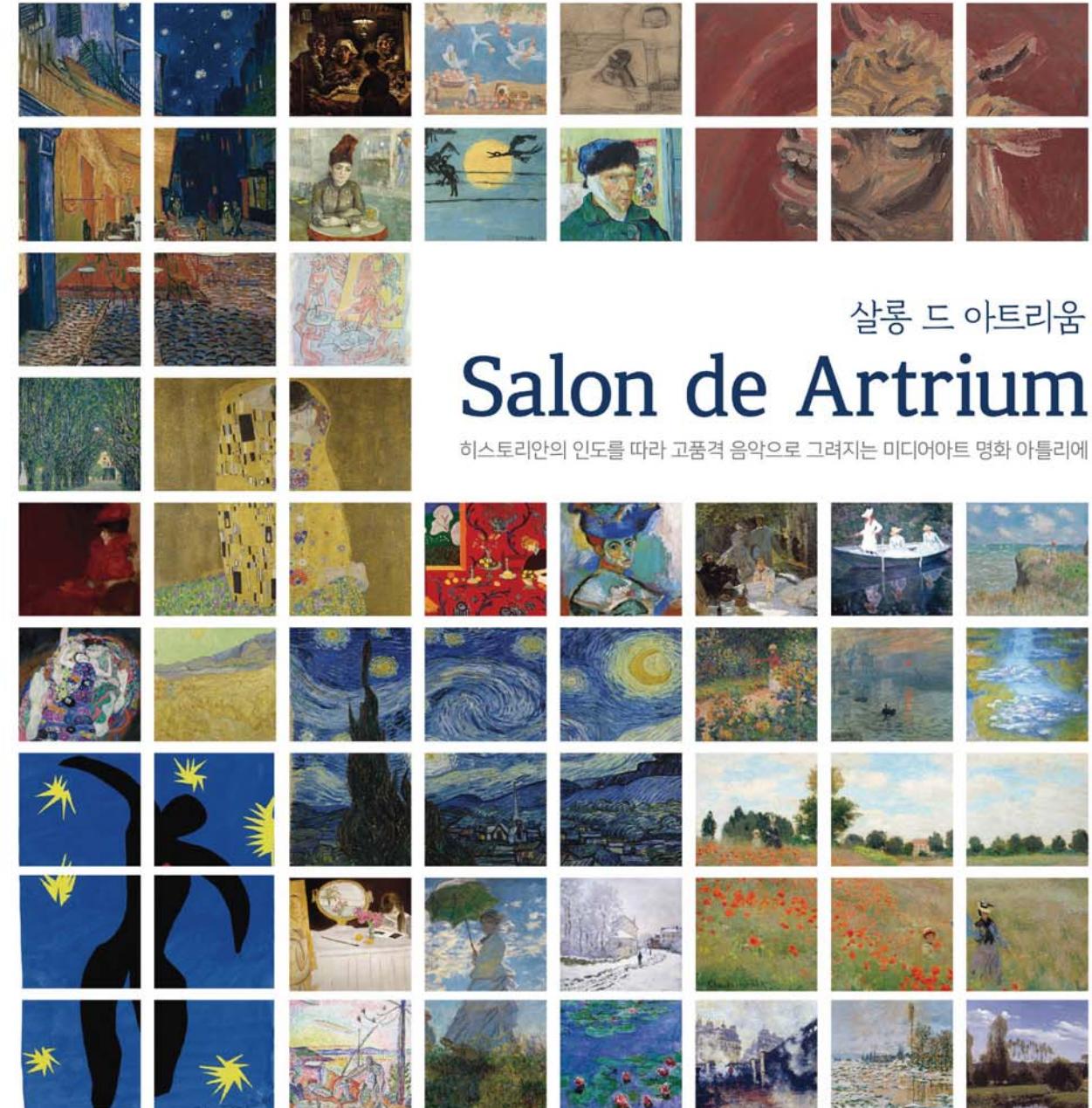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Cavalleria uesticana>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이 베리즈모(극사실주의) 오페라의 걸작,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로 수원SK아트리움에 상륙한다. 1889년 당시 예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시골 사람들의 생활과 애욕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부활절에 일어나는 시골 젊은이들의 사랑과 배신, 질투!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적 사랑이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진다. 특별히 오페라 도입 부분의 '간주곡'은 감성 어린 선율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데, 영화 [대부]의 마지막 장면에 삽입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다. 국립오페라단의 최정상급 배우와 연출진이 선보이는 19세기 시칠리아의 풍경 속으로 초청한다.✿

일시 12.18.(토) 17:00

장소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



2021 수원SK아트리움 「문화가 있는 날」 시리즈  
'뷰티풀 데이즈'



수원SK아트리움  
Suwon SK Artium

살롱 드 아트리움

# Salon de Artrium

히스토리안의 인도를 따라 고품격 음악으로 그려지는 미디어아트 명화 아틀리에



장소 |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 (8세 이상 관람가)

공연문의 | 수원SK아트리움 031-250-5300, www.suwonskartrium.or.kr

티켓문의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수원SK아트리움

음악으로 그리는 화가의 아틀리에

2021.04.27.(화) 오전 11시 별을 닮다, 반센트 반 고흐

2021.05.25.(화) 오전 11시 베토벤 프리즈, 클림트

2021.09.28.(화) 오전 11시 빛을 따라가는 여성, 클로드 모네

2021.10.26.(화) 오전 11시 이중섭, 그림과 편지

2021.11.23.(화) 오전 11시 Jazz로 만나는 앙리 마티스

수원SK아트리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공연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Writer 강일서  
내가 오손도손, 양생풀디그, 민족작업소

## 코로나를 대하는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공간적 거리만이 아니라, 마주 보고 대화하던 정서적 교감도 멀어지게 했다.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키워드 역시 '비대면'이다. 하지만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문화예술은 더욱 간절하다. 공연을 보고, 미술관을 거닐던 예술적 공감대를 찾아가기 위해 코로나시대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났다.

##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오손도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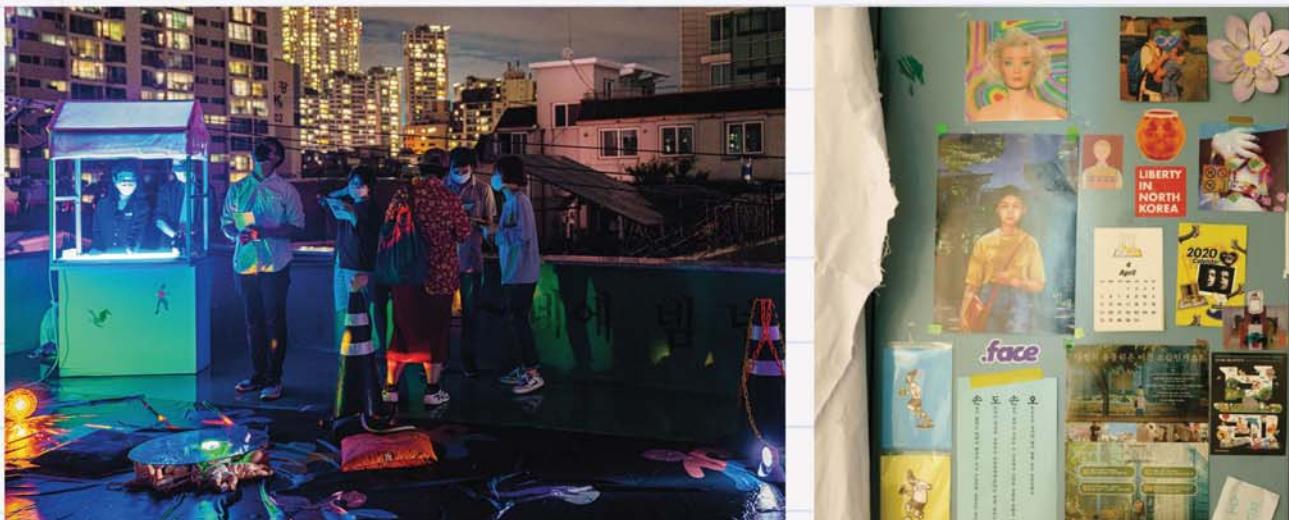
오손도손은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담고 색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문화예술복합공간이다. 2018년 10월 문을 연 오손도손은 순수예술(fine art)을 전공한 김보람 대표의 개인 작업실로 시작했다. 그런데 혼자 쓰기에는 공간이 꽤 커서 어머니와 함께 책방으로 영역을 넓혔고, 어머니 성함(오손)을 담아 오손도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이지트로 탄생했다. 김 대표와 그의 어머니는 수원에서의 경험에 다양하고 '수원'이라는 도시에 애정을 많이 품고 있어서 지역 주민과 예술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는 공간을 직접 꾸리는 것을 꿈꿔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김 대표가 작업한 드로잉과 오브제가 작업실부터 책방까지 곳곳에 장식돼 있다. 오손도손은 지금도 계속 변화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나다움'이 있어서 더욱 애정이 가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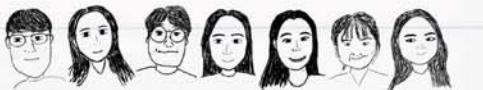
"분명 우리 가까이에도 예술과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나눌 공간이 필요한데, '평범한 동네 안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세상 이야기들을 제한 없이 나누고 인정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보고자 소소한 이야기가 담긴 책들과 실험정신 가득한 소규모 모임, 키어 관련 전시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했으며, 이런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민들과 대화의 폭을 넓혀가고자 한다. 오손도손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쪽 공간은 개인 작업실로 사용하고, 바깥 공간을 대관공간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오손도손에서는 책방을 찾는 동네 분들과 청년 예술작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프로젝트와 다양한 그룹의 대화모임을 진행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 19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조심스러워 소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무인 갤러리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무인 갤러리 예

술 플랫폼(연무지개)을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관람객은 QR코드를 찍고 입장할 수 있는 비대면 예술 공간으로 운영했다. 바이러스로 모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예술은 늘 존재하니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김 대표는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다양한 것들을 구상 중이다. "매주 토요일에 진행했던 <노 과학책> 모임과 야구팬 모임이 있었는데 현재는 코로나 19로 쉬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독립책방의 프로그램도 다듬고, 더욱 다양한 예술 활동과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며, 오손도손이 꿈꾸는 문화예술복합공간에 다가가고 싶습니다."라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전한다. 우리가 오손도손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른을 인정하며 사이 좋게 어우러지는 것처럼 김 대표가 꿈꾸는 오손도손은 어떤 공간으로 채워질지 기대된다.

**i n f o .** 주소: 장안구 수성로 303번길 3, 301호  
프로그램: 드로잉클라쓰, 노과학독서모임  
운영시간: 예약제 운영  
대관료: 1일 5만 원  
인스타그램: @ohson\_doson  
메일: ramiveni@gmail.com  
문의: 010-5570-7338





## 음악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양상블디그

양상블디그는 클래식 뿐 아니라 영화 음악, 가요, 뉴에이지, 팝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클래식 악기와 음악을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모인 청년 음악가들로 결성된 양상블 팀이다. 양상블디그는 비올리스트인 안현주 대표와 첼리스트인 한효정 부대표,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플루티스트, 오보이스트 최근에 합류한 호르니스트까지 8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다. 2016년 8월 비슷한 음악관과 열정을 가진 이들끼리 의기투합해 결성한 이래로 그들은 카페나 갤러리 등지에서 공연을 열어왔다. 학교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무대에서면서 각자의 역량을 뽐내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양상블디그는 매달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공연을 열어왔으며 수원과 평택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음악 공연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공연이 주 트렌드가 된 만큼 수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인 '도도링크'에 참여하게 됐다. 도도링크는 고립된 일상을 연결하는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양상블디그는 도도링크의 일환인 비대면 합창단 <언택트 하모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양상블디그는 작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참가자 43명을 모집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연습 일정을 공지하고 김대현, 이보람 성악코치를 통한 일대일 멘토링도 진행했다. 이어 8월 18일부터 유튜브 채널인 'Untact\_harmony언택트하모니'에 합창단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시작으로 발성, 호흡 훈련은 물론 각 주차별 연습 영상을 업로드해 왔다. 이들이 선보인 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그대 있는 곳까지>로 관객의 귀에 익숙한 곡들이었다. 더욱이 영상에는 언택트 하모니 티셔츠를 입은 단원들이 비대면 공연 특성에 맞게 한 자리가 아닌 저마다의 화면에서 합창에 나서 이색적인

모습도 연출했다. 안 대표에게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13주에 걸친 비대면 합창단 <언택트 하모니> 프로그램을 마친 소감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양상블디그는 언택트 하모니 이전부터 가요, 애니 OST, 영화 OST 특집 등을 콘셉트로 공연에 나선 건 물론, 클래식 악기 특유의 지루함과 엄숙함을 타파하고자 무대 뒤편에 빔프로젝트로 편집 영상을 띄워놓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라며, "언택트 하모니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무료함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랜선 공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자체 연주회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사회에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양상블디그 그들은 문화예술계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따뜻한 음악으로 또 한 번 관객들의 마음을 녹여줄 환상의 하모니가 기다려진다.

[언택트하모니 50인 합창단]  
유튜브 영상 보기



**i n f o**

주소 장안구 경수대로847번길 8  
단원 피아노-나채운, 바이올린-신서한, 김신재, 비올라-안현주, 첼로-한효정, 플루트-최예나, 오보아-김성일, 호른-박광희  
인스타그램 @ensemble\_dig  
페이스북 @ensembledig  
문의 메일 digensembl@naver.com



## 가능성으로 바라본 문화예술 만물작업소

만물작업소는 무엇이든 다양한 도구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팀이다. 그들은 처음에 영화라는 도구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영화의 영역에서 미디어, 시각예술, 목공, 놀이, 책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 전문영역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만물작업소 뿐만 아니라 만물작업소가 만나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어떠한 도구로 풀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승준 대표. "지금까지 사용해온 도구들 말고도 앞으로 또 새로운 도구, 흥미로운 도구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2014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그는 2018, 2019년에 수원문화재단에서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로 진행한 '자넨 어디 사람이오'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자넨 어디 사람이오'는 수원에 사는 청년 10명 내외가 모여 각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 인터뷰집을 제작한 프로젝트다. 이 대표는 개인방송, 개인채널이 넓어지는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작업을 통해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만물작업소는 작년에 재단과 비대면 사업인 <에브리바디스마일>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에브리바디 스마일>은 그림으로 작업한 수원시민들의 미소와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참가자가 게양대에 직접 걸어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게 했던 작업이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기획지원사업이라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는데,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고, 비대면이다 보니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다.

"아무래도 인터넷 도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비대면이다 보니 즉각적인 반응을 살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물작업소는 다양한 시도는 물론, 아쉬운 점을 토대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간다. 이 대표가 문화예술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능성' 때문이다. "옛날에는 영화나 방송이 카메라, 미디어 발신자의 권리가 매우 강하고 그것 자체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SNS, 개인 방송 등 누구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창작하는 것이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예술 창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작년 2월까지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로 있던 만물작업소는 현재 작업 공간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다.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어렵지만, 올해도 만물작업소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계획이다. ☕

**i n f o**

주소 장안구 장안로 506  
문의 070-8880-3861  
메일 all.things.studio@gmail.com  
인스타그램 @manmul\_work  
홈페이지 manmulwork.imweb.me; manmul.egloos.com

# LEE JUYEONG

Writer 권유진 Photo 조병우



낮고 작고 짙게 52x104 / 창지에 콘테

작가 이주영

## 시대의 한복판에서 마주친 가장 어두운 이야기

수원천을 사이에 두고 재래시장들이 즐비한 지동교 위에 간당간당한 삶들이 흘러져 있다. 구부정한 등에 자기 몸집만큼이나 큰 가방을 멘 노인,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무릎에 고개를 묻은 이, 운전치 않은 몸에 의지해 생을 살아내는 사람들……. 위험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이들이 지동교에 있었다.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2020년 초봄, 이주영 작가는 지동교 위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대의 한복판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그려온 작가는 먹먹한 표정으로 관객을 바라보는 작품 속 이들의 눈을 통해 아픈 현실을 전한다.



## 숙명과도 같았던 작품 속 그늘진 풍경들

어렸을 적 소아마비를 앓았던 이주영 작가에게 그림은 삶의 전부였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집에만 있는 아이가 안타까워 어른들은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선물해 주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즈음 스케치북 곁장에 그려진 명화를 접했고,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밀레와 고흐의 그림을 따라 그렸다. 장래희망에 늘 화가라고 쓴 소년은 청소년 시기 프랑스 화가이자 판화가인 오노레 도미에를 알게 된다. 정치 풍자화로 투옥될 만큼 현실의 부조리에 관심이 많았던 그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가혹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을 다닌 이주영 작가에게 시대의 모순에 대한 고민은 숙명이었다.

“1986년, 목판모임인 ‘판’에서 민중 작가로 활동했던 故최춘일과 공부했어요.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철거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때 동료들과 함께 철거 현장으로 가서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외면할 수 없을 때마다 화판을 챙겨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민중미술운동에 참여한 그는 수원문화운동연합 시각예술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생계가 어려워 잠시 봉을 놓은 시기도 있었지만, 2003년 수원으로 돌아와 또다시 소외된 사람들을 화폭에 옮기기 시작했다. 남수동의 꿈, 신대방동 아이처럼 우리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를 그리기도 했고,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해외의 풍경을 화폭에 담기도 했다. 얼핏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림이지만 따뜻하고 섬세한 작가의 시선은 한결같았다.

“생계 앞에서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삶 속의 가장 약한 존재들, 자본이나 권력의 폭력에 삶이 흔들리는 풍경을 꼭 그려야만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한, 예술가로서의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 코로나19 속 지동교 위 위태로운 사람들을 그리다

2020년 1월, 그의 시선은 코로나19 속 소시민의 삶에 머물렀다. 지동시장 인근 작업실에서 바란 시민들의 모습, 바이러스를 향한 두려움 속에서도 삶을 살아내는,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을 담기 위해 지동교로 향했다.

“그리가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반가운 만남도 있고 아픈 이별도 있는 반면에 완전하지 못한 두 장소를 겨우겨우 이어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지요. 지동교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그랬어요. 간당간당한 다리 위에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꼭 담고 싶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에 낡아빠진 누더기옷을 입은 사람, 종일 한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 구부정한 몸으로 매일 같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콘테(콘테, Conte)로 그려졌다. 하얀 장지 위에 흑색으로만 표현된 인물의 모습은 얼굴이 마스크에 가려져 있음에도 절망과 무기력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색의 덧입힘 없이 완성된 그림에는 사무치는 차가운 현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을 만큼 노골적이게 담겨있다. 그가 1년 가까이 그린 120점의 작품은 지난 1월 수원 해운미술관에서 열린 <이주영 콘테展-지동교, 봄>으로 공개됐다.

“그리고 싶은 걸 못 그리면 마음은 물론 몸도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일일이 현장으로 가는 게 부칠 때도 있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동교로 갔어요. 현장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광경을 만나면 그게 바로 현장이지요. 그리고 그늘진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속에 제가 있어요.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바로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작가로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그의 말처럼 이주영 작가는 자신의 숙명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지동교를 배경으로 한 <서 있는 사람> 연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가 전하는 우리 사회 속 가장 아픈 이야기는 예술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를 대신하고 있다. ☀

### Conte(콘테, 콘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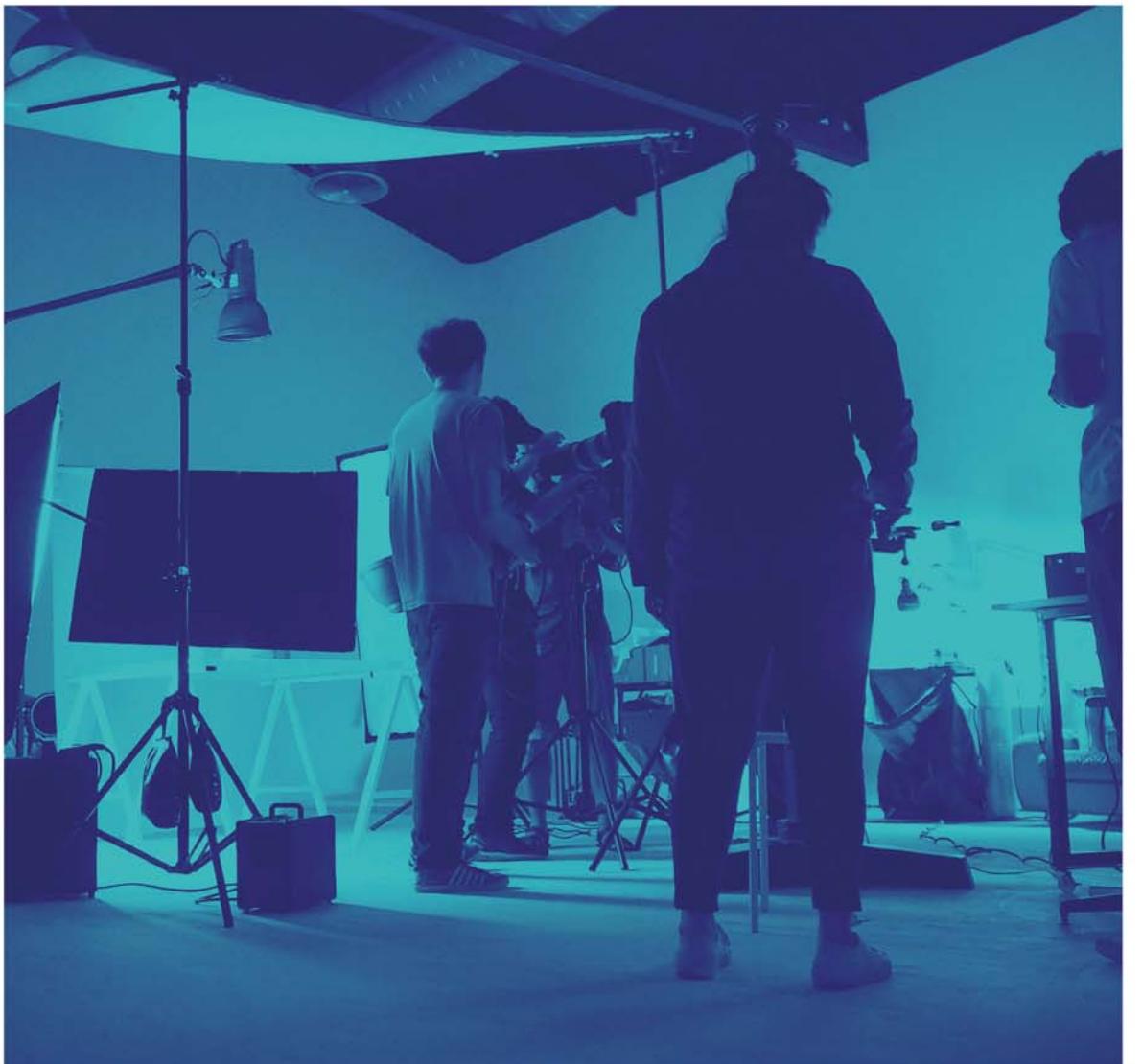
나무를 태워 만든 목단과 달리 콘테는 안료상분에 납과 기름을 섞어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 재료다. 콘테는 원래 Crayon de Conte라 불리는 고형 물감의 한 종류로 프랑스의 화학자이며 화가였던 니콜라 자크 콘테(Nicolas Jacques Conte)가 만들었다고 해서 콘테(conte)라고 명명하고 있다.

## 이주영 PROFILE

수원민예총, 수원민미협 회원	1992. 수원미술인 협의회(수미협) 대표	2009. 2회 개인전 - 수원미술전시관
1986. 중앙대 졸업	1993. 평택으로 이주	2011. 3회 개인전 - 수원미술전시관
1987. 수원문화운동연합, 판화모임 ‘판’ 활동	삶의 현장에서 아득바득 살아남다	2013. 동네야 놀자전 - 수원미술전시관
1988. 미술동인 새벽 결성	2003. 1회 개인전 - 수원미술전시관	2019. 영경퀴 소풍전 - 크로키
1990. 새벽전 - 선화랑	2004. 수원 민미협 대표	2020. 아: 대한민국전 - 해운미술관
안양 우리들의 땅전 - 안양문화예술회관	아시아는 지금전 - 경기문화의 전당	2021. 그럼에도 드로잉전 - YTN 남산 갤러리
1991. 수원미술인협의회 창립전 - 선화랑	2006. 조국의 산하전 - 대추리 현장(마을창고)	2021. 7회 개인전 ‘지동교, 봄’ - 해운미술관



## 모두가 주인공인 미디어 세상을 꿈꾸다



**수원미디어센터**

유튜브의 대중화로 영상매체는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영상매체는 때론 스스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수원미디어센터는 영상 미디어를 통해 표현하고 교류하며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함께 미디어를 만들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듣고, 나아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길 꿈꾼다.

Writer 권우진  
Photo 조병우

### 01 SUWON MEDIA CENTER

영상 미디어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에게 친숙한 TV 뉴스부터 SNS를 통한 모바일 방송, 최근에는 유튜브가 대중화되면서 영상 미디어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매일 보기만 하던 영상 미디어를 직접 제작해보고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자리한 수원미디어센터다.

수원미디어센터는 영상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누구나 영상 미디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시민미디어강좌는 영상편집이나 포토샵 등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에 담긴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다. 미디어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치 있는 영상 미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센터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수원미디어센터 최혜란 센터장은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큼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능력을 키우는 것도 강좌의 핵심 목표다.”라고 전했다.

“각각의 강좌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제작, 단편영화 제작, 단편 시나리오로 나누어 워크숍이 이뤄지는데 워크숍마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어 수강자들의 동기부여가 매우 뚜렷합니다. 영상편집이나 장비 사용방법 등 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오신 분들도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접하며 새로운 목표를 찾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원역 CGV를 대관해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의 작품 발표를 진행했다. 시민 한 명당 5명 이내로 초대인원을 정해 시사회를 했고, 시사회 이후 작품 제작자와 관객이 함께 소통하는 GV 시간도 마련됐다.

“중단편 영화 대관지원사업에 통해 운 좋게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시사회를 하고 GV까지 열리니 워크숍 참여자분들이 정말 감독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같은 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마련할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

수원미디어센터 최혜란 센터장

## 02 SUWON MEDIA CENTER

영상을 만들며 찾은 진정한 내 모습

수원미디어센터 이용 안내  
주소 팔달구 권광로 293 지하 1층

(인계동 334-1)

홈페이지 [www.swmedia.or.kr](http://www.swmedia.or.kr)

이용시간 월·화·목·토 10:00~17:00, 수·금  
10:00~21:00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제외)

휴관일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노동절(5.1)

창립기념일(10.1)

회원가입 홈페이지 참고

현재 시민미디어강좌는 코로나19로 지난해 7월부터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이뤄지던 장비 대여의 경우 정회원 예약자로 1인 방문 대여가 가능하다. 실습이 불가능해지면서 수강생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수원미디어센터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센터의 목표를 새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 개선 문제에 더욱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회 배려계층은 건강 약자인 경우가 많고, 이동에 제한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분들께 미디어 복지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기존에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지만, 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이동이 불편하시거나 장비 사용에 제한이 있는 분들에게 직접 방문해 미디어에 대해 가르쳐드리고, 사회 배려계층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원미디어센터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의 미디어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공모사업 3년째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마을미디어활동가’로 선정된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미디어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지역의 이슈를 시민들끼리 공유하며 소통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제작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는 단순한 지역 홍보가 아닌 시민들의 평소 고민과 진지한 시선을 담은 기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보람이 매우 크다. 지난해부터는 수원시 공공 미디어플랫폼 ‘똑똑수원’을 통해 콘텐츠를 축적하고 이를 많은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모두가 주인공인 미디어 세상을 꿈꾸는 수원미디어센터. 영상 미디어가 일상의 중심이 된 가운데 영상 미디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이를 사회 곳곳에 퍼뜨리기 위한 수원미디어센터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Q. 수원미디어센터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수원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제작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일반 교육실과 디지털 교육실, 사진 및 영상 스튜디오, 사운드 믹싱, 효과음 녹음, 더빙이 가능한 소리 스튜디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실, 전문 편집실, 각종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미디어 도서관 등 영상 미디어에 관한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로 영상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상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매체더라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매체의 성격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그 어떤 매체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 매체로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담는 메시지도 공공성을 가져야 합니다. 수원미디어센터에서는 시민 스스로 제작의 즐거움이 있고 의미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장려해 미디어가 지닌 가치를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Q.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센터 시설을 체험하는 것 외에도 2019년에 <슬기로운 유튜브 생활>이란 연구개발도 진행했어요. 유튜브를 잘 활용할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것으로 기존에 ‘유해 콘텐츠를 보지 않는다’처럼 당연한 이야기 외에도 유튜브 속 좋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청소년이 영상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난해 평택 진위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수원미디어센터를 방문하셨던 분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2019년 패 오랜 호흡으로 보훈원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에 대한 다큐를 제작한 마을미디어 활동가 있습니다. 제작자의 열정과 진정 어린 시선이 느껴져 작품을 보는 누구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센터에서 미디어 콘텐츠 기획, 편집, 제작 등 여러 과장을 배우고 자숙해서 개인적 혹은 공동체 작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 자부심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수원미디어센터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향유하는 것은 물론 직접 제작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지역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수원을 향한 애정을 담다



김훈동 시집『틈이 날 살렸다』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언제나 변함없이 포근하고 정겹다.  
‘제 보금자리 사랑할 줄 모르는 새 없다.’는 속담처럼 누구나 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지만 수원시를 향한 김훈동 시인의 애정은 곳곳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다.

### 틈, 휴식이자 다음 단계를 위한 그 시발점

김훈동 시인이 지난 1월 말 선보인 문학공간시선 400호 시집 「틈이 날 살렸다」는 표지부터 마치 한편의 시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근당 양택동 서예가가 그린 표지화는 오두막에 두 사람이 술잔을 옆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고, 서원 윤경숙 서예가가 쓴 표제도 특유의 멋을 더했다. 「틈이 날 살렸다」 제목에는 험축적인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김훈동 시인은 모여있는 사람의 속이라는 뜻을 가진 ‘틈’의 국어사전적 정의뿐 아니라 여유이자 생명의 시간, 휴식이라고 전했다.

“휴식의 의미는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발점이 틈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우리말로 하면 틈이라는 말, 너를 위하고 나를 지키는 사이라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만남이 끊어져 버린 때, 시(詩)집에서라도 만남과 교류를 했으면 하는 소개 글처럼 틈의 소중함에 대해 곱씹게 된다.

### 독자에게 전하는 이야기, 그리움의 대상 어머니

누구에게는 안심되는 이름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이 담긴 ‘엄마’. 일흔을 훌쩍 넘긴 김훈동 시인은 일찍이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 이야기를 담당히 꺼냈다. “엄니에 대해 쓴 이야기가 있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밝게 웃는 그의 모습은 소년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엄니라고 부르는 모습에도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이 책에는 ‘우리 엄니 맴매’, ‘된장에 엄니 냄새난다’, ‘조심하거라’ 등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있는 시들이 있다. ‘된장에 엄니 냄새난다’는 시의 한 구절을 읽어보면 ‘된장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 삶의 지혜 알려주시던 우리 엄니 체취가 난다’ 이외에도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작품들이 소개돼 있다. 해설을 쓴 임병호 시인은 무릇 고향은 어머니 품과 같아 어머니의 체취를 느낀다면 서 삼 형제의 아버지이자 손자손녀를 둔 할아버지인 김훈동 시인도 작품에서는 소년이라고 표현했다. ♣

###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담아 다시 읽고 고쳐 쓰며

김훈동 시인은 고향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한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소개했다. 앞서 출간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시화집『수원 화성(華城)의 숨결 시와 그림으로 빛다』 역시 지난해 물 한 병 들고 성곽 안팎을 술하게 돌며 담아낸 것이라고 하니 익히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는 자신의 손을 떠난 시집은 독자의 것이기에 피와 살이 되도록 한 번 쓴 시도 읽고 또 읽으며 맛깔스러운 시어로 다듬는다고 했다. 인생을 부지런히 살아왔다는 김훈동 시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나도 영원히 젊을 줄 알았어요. 어느덧 70대 후반을 향해 가면서 언제 세월이 이리 흘렀는지… 값진 자산은 시간뿐이 없어요.”

만약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가 생각한다는 시인의 말을 듣고 「틈이 날 살렸다」를 비롯해 작품들을 살펴보니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다.



김 훈 동 작가 소개

김훈동 시인은 1944년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해 서울대 농대, 중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농협대학교 교수, 경복대학교 겸임교수, 농민신문 편집국장, 경기농협본부장을 거쳐 대한작십자사경기도지사 회장을 지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수원문인협회 회장, 수원예총 회장, 한국예총 감사, 수필문학작가회 회장을 역임. 수원시미술전시관장,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위원장,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지역에서 뜻을 펼쳐나갔다. 한국농민문학상, 한국수필문학상, 수원문학대상, 홍재문학대상, 한국예총예술문화대상, 수원시문화상, 자랑스런경기인대상, 중부홍익대상, 울곡대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시집『우신』『역세계』『나는 숲이 된다』『수원화성의 숨결』, 수필집『그냥, 지금이 참 좋다』『넌 그 많은 책 다 읽나?』, 칼럼집『人人和樂 - 수원의 가치를 높인다』『월 배우고 가나?』, 문학이론서『탐구하고 터득한 글쓰기 세계』 등 40여 권이 있다.

햇살 좋은 오늘,  
작은 책방이 주는  
소통과 위로

한 권 한 권 손수 고른 책들로  
채운 서가. 그 책들을 천천히 훑어보면  
책방 지기의 취향과 안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 독립서점이다.  
창문 틈으로 떠스한 빛살이 아득한  
책방을 채우며, 저마다 감성으로  
이야기하며 위로를 건넨다.



## 우리의 평안한 공간 오펑 OHPYEONG

### 책방 지기 추천도서

<sup>1</sup>낯선 직업일지도 모르지만 흥미로운 건설 분야  
광고카피라이터의 자서전이 아닌 자업전  
『탈직장 자업전』(서미현)

<sup>2</sup>나의 Cubano에게 자유를 선물하기 위한  
여정을 그린 한 편의 독립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  
『Mi Cubano』(고물)

<sup>3</sup>26개국을 홀로 여행하며 집필한,  
낯선 이국땅의 정취가 묻어나는 시집  
『경계에서』(이우)



## 따스하게 마주치며 천천히, 스미는

### 책방 지기 추천도서

<sup>1</sup>따스한 봄, 여기 저기에서 들리는  
깨어나는 소리와 함께 읽기 좋은  
『소란』(박연준)

<sup>2</sup>영미 작가들의 짧지만 깊은 울림과 여운을 주는  
에세이를 담은  
『천천히, 스미는』(봄날의 책)

<sup>3</sup>허무하고 외롭지만 쿨하게 우뚝 선  
나를 만날 수 있는  
『일인칭 단수』(무라카미 하루키)



### 책 읽어주는 북카페 청명book로

#### 책방 지기 추천도서

<sup>1</sup>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일까. 읊으면서 읽었던  
『싯다르타』(헤르만헤세)

<sup>2</sup> 실어증에 걸린 할머니와 언어치료사 제롬,  
마리와 따뜻하고도 고마운 이야기.  
『고맙습니다』(엘핀드비강)

<sup>3</sup> 2020년도 책방 지기가 읽은  
140여 권의 책 중 2등!  
『그녀를로이』(마르크레비)

A 영통구 청명북로 15(영통동 1044-11), 1층  
T 010-5243-3510  
O 월~토요일 10:30~22:00 / 일요일 10:30~18:00(변동시 인스타 공지)  
S @cm\_book\_ro  
P 프로그램 독서 모임: 화요일 14:00(2주에 1회), 19:30(3주에 1회), 금요일 10:30(2주에 1회)  
원서 읽기 모임: 매주 화요일 11:00 / 그림책 모임: 매주 목요일 10:30 고전 읽기 모임: 매주 토요일 19:30  
청청클럽(중등): 매주 수요일 19:00 / 청청클럽(초등): 매주 목요일 20:00 / 영화모임: 정기적으로 진행(문의)



### 수원시 작은 책방 둘러보기



※ 수원시 작은 책방을 수록했으며, 모든 책방이 수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없어졌거나 새로 생긴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스타그램 주소

광화문서립 @gwanghwamoonbookforest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09번길 33

낮설여관 @ridinn.book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7가번길 33, 2층 204호

오손도손 @ohson\_doson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03번길 3, 301호

책방마음이음 @maumileum.books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46번길 3, 203호

나무아래책방 @thetreebook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1 메두하임오피스텔 108동

B103호

담해북스 @damhaeboks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B동, 1층 199-2호

랄랄라하우스 @lalala.house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41-1, 1층

마그앤그래 @magandgra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316번길 49

브로콜리숲 @broccoli\_soap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 인스타그램 주소

삼월책방 @march\_books 수원시 명통구 권선로882번길 31-52, 1층 102호

서른책방 @30books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74번길 79

그린의미에서 @2nd\_his\_meaningshop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40번길 42-2, 1층

아유컨셉 @amu\_concept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97번길 34, 101호

청명book로(청명북로) @cm\_book\_ro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 15

오펴 @o\_pyeong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7번길 8-16

책먹는데지 @piggyeatsbooks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00, 1층

천천히스미는 @permeate\_slowly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52번길 20

백년서점 @century\_bookshop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52, 1층

Writer 김정연 자유기고가  
Illustrator 현진선

## 부캐와 멀티캐로 대중을 사로잡다



현대인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자기 안에 담고 있다. 낮에는 회사원, 저녁에는 밴드 기타리스트, 주말엔 아르바이트까지. 생계를 위해 투잡도 불사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장소는 물론 사람들의 관계에 따라 수많은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캐와 멀티캐 전성시대다.

### 방송가 인기 아이템, 나도 부캐

멋진 드럼 실력을 뽐내는 '유고스타', 트로트 신인가수 '유산슬', 라면 끓이는 요리사 '라색', 하프 신동 '유르페우스', 라디오 DJ '유DJ뽕디스 파워', 치킨을 튀기는 '닭터유', 그리고 여름 댄스 혼성 그룹 '싹3'의 멤버 '유두래곤'까지. 바로 국민 MC 유재석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른바 '부캐'라고 일컫는다.

'부캐'란 본래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다. '본캐(본래 캐릭터)'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원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리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후 일상생활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놀면 뭐하니?>의 시청자라면 알겠지만, 이것은 일종의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 역할 놀이다. 유재석이 "저는 유산슬이라는 신인 가수고 소속사는 MBC이며 소속사 사장은 김태호 PD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방송에서 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 또 다른 캐릭터가 바로 '부캐'이고 '본캐'는 유재석이다.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나온 부캐의 큰 시발점은 마미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쇼미더머니 시즌 7에 출연하여 매드크라운과 매우 비슷한 랩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매드크라운이라고 의심을 했지만, 본인은 아니라며 연기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저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볼 뿐 부캐에 대한 열풍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인기 개그맨 유재석을 내세워 다양한 부캐를 만들어내고 이를 콘텐츠로 활용한 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요즘 방송가, 특히 예능계에서 부캐란 키워드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효리 역시 유재석과 함께한 '놀면 뭐하니?'에서 부캐, '린다G'와 '천옥'을 선보였다. 개그우먼 김신영은 '다비 이모'라는 부캐로 트로트 앨범을 내며 가수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제작사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부캐선발대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가수, 개그맨, 스트리머 등이 새로운 정체성의 부캐를 공개하고 경연하는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다. 시즌1의 최고 부캐 '아아(탁재훈, 이지훈)'에 이어 시즌2에 참여할 새로운 부캐들을 모집한다.

1

### 다양한 정체성, 멀티 페르소나

이렇게 많은 가면을 활용해 다양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멀티 페르소나'라고도 한다. 새해 트렌드를 매년 예상해온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2020년 핵심키워드로 멀티 페르소나를 꼽기도 했다. 상황에 맞게 가면을 바꿔 쓰듯 다양한(멀티 Multi) 정체성을 가진 현대인을 일컫는 말이며,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페르소나 Persona)'을 뜻하는 단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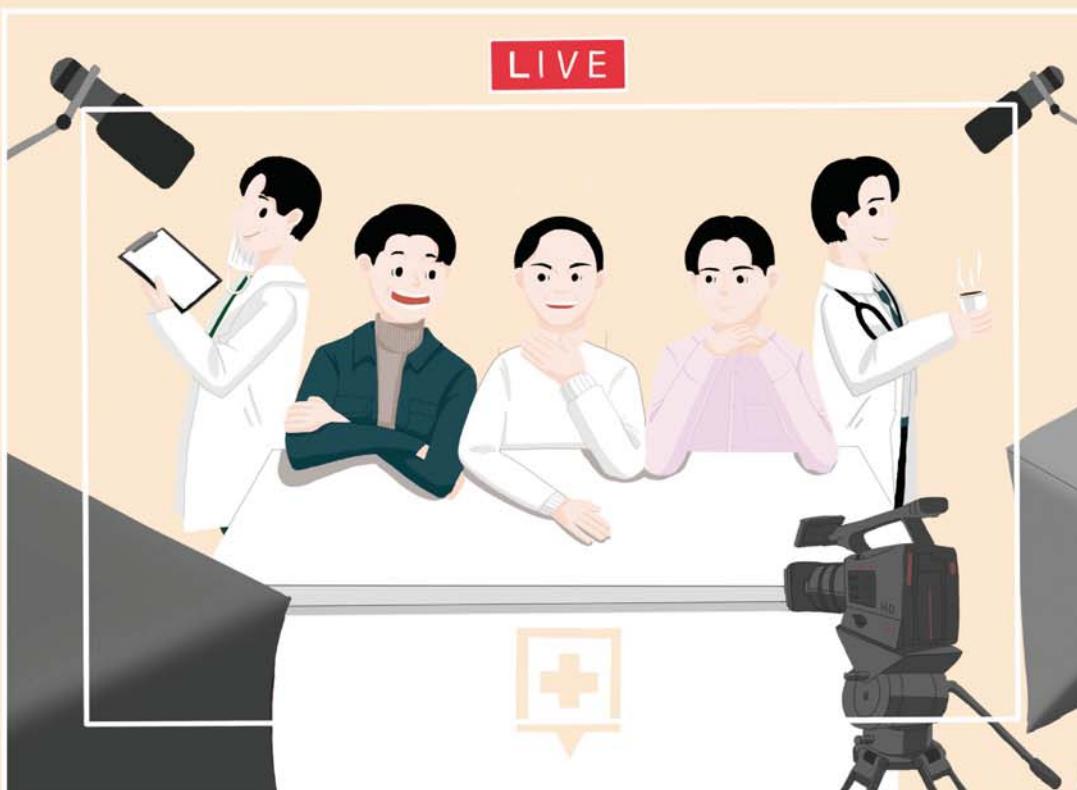
이러한 멀티 페르소나는 셀럽들에게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다. 멀티 페르소나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미 이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마다 어린 시절 파워레인저, 프리큐어 등 만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따라 하거나 역할을 정해서 소꿉놀이를 해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이 발달하면서, 모바일을 통해 정보 확산 및 교류가 많아지고 SNS에서 여러 부계정을 활용하며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멀티 페르소나는 20~40세대 직장인들에게서 흔히 찾을 수 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조용하게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주말 동안 락페스티벌이나 클럽에서 즐기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또 즐거운 일상을 위해 주말에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치며 콘서트를 열고, 퇴근길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는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버가 되어 자신만의 페르소나들을 만들어간다.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까지 하다 보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몸이 열 개가 되니, 정체성도 열 개가 되곤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맞춰 본인의 모습을 바꾸거나 때로는 감추며 생활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며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7.6%가 회사에서의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40대 이상 직장인(71.2%), 20대(80.3%)와 30대(78.0%) 직장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회사에서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에 맞추기 위해서 그들만의 가면을 쓰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양면성은 악성 댓글을 다는 네이버로 활동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낸고 있다. 이런 부캐들은 기존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자신의 스펙트럼을 자연스럽게 넓히는 계기가 된다. 취미로 배웠던 요가나 필라테스에 빠져 요가 강사가 되고, 그저 먹는 게 좋아서 맛집을 돌아다니면 올렸던 사진들로 인해 SNS 스타, 인플루언서가 된다. 또 본업의 연장선으로 자신들이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시작한 동영상이 많은 조회 수를 얻으면서 본격적인 유튜버로 활동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약 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닥터프렌즈'는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3명으로 구성된, 의학 상식들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다. 그들은 낮에는 의사로 본업에 임하다가,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동영상을 촬영한다. 인기 크리에이터가 된 '닥터프렌즈'의 새로운 일상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었던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발판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6월 개그콘서트(KBS2) 폐지로 무대를 잃었던 개그맨들이 유튜브에서 '부캐' 열전을 펼치며 더 큰 인기를 누린다. KBS 공채 29기로 2014년 데뷔한 개그맨 이창호가 연기하는 부캐인 '피식대학'의 '이호창'이다. 개그콘서트의 '라스트 헬스보이' '민상뉴스' '귀생충' 등 의 코너에 꾸준히 출연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창호는 개콘 폐지 이후 도리어 전성기를 맞았다. 앞서 '부캐'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은 대표적인 개그맨 추대엽, 일명 '카피주'도 있다.



### 브랜딩, 마케팅 시장도 부캐 열풍

이러한 다양한 현대인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생활 및 소비패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유연한 자아의 멀티 페르소나는 다양하게 분리되는 소비자들의 선호를 따라잡기 위해 '기업 소비의 특화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크다. 기업은 주력상품과는 연관성이 없는 카테고리로 제품 이미지를 확장, 전혀 다른 콘텐츠로 고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대한제분의 곱표 밀가루다. 2019년 겨울 출시한 곱표 패딩이 이른바 '인싸템'이 되면서, 어떤 상품이든 곱표의 이름과 특유의 캐릭터를 달기만 하면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간 사료'라고 불리는 곱표 팝콘을 비롯해 곱표 맥주가 대박을 터트리며 곱표 열풍을 이어간다. 또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의 캐릭터 '신묘한'도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제일기획의 부캐인 제삼기획의 굿즈 등 다양한 형태로 상품 개발되고 있다.

하이트진로 역시 진로 소주의 로고 '두꺼비'를 다시 내세워 큰 변화를 맞이했다. 젊은 세대에게는 레트로 감성을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주는 캐릭터로 하이트진로 굿즈를 판매하는 '어른이 문방구 두껍 상회(시즌 한정)'도 오픈했다. 빙그레도 34년 된 '꽃게랑'을 재해석해 의류 및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었다. 꽃게랑의 부캐격인 '꼬뜨-게랑'

(Côtes Guerang)은 모델로 패션 아이콘 지코를 내세우고, 꽃게랑 스낵 모양으로 디자인한 로고가 적용된 선글라스, 티셔츠, 로브, 백, 마스크 등의 제품은 큰 인기를 끌며 완판되었다. 이 같은 부캐 열풍은 한동안 우리 생활에서 사그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있는 그 놀이판에 기꺼이 올라가 함께 논다. 그것은 분명 거짓말이고 연기며 장난이자 농담이지만, 현실에는 없는 그 무엇이라 대중은 더 즐겁게 속아줄 수 있다. ↗

김정연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집지학과를 졸업  
해 기업과 사회단체의 사보 및 사사 전문작가  
로 활동하다가 교육 잡지사 편집장을 역임하고  
자유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워킹걸  
의 이야기를 담은 <29동성>이 있다.

## 카페 컵이 이끄는 힘



컵 cup : 물이나 음료 따위를 따라 마시려고 만든 그릇.

이제 컵은 단순히 물이나 음료를 따라 마시는 그릇이 아니다. 우리는 커피 한잔을 마시더라도 커피 맛은 기본이며,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음악, 컵까지 감성을 자극하는 시대다. 시각을 자극하는 커피잔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놀랍다. SNS에는 예쁜 컵과 독특한 디자인의 테이크아웃 컵을 찍은 사진들이 넘쳐난다. 맛으로 승부를 보던 시기는 지났다고 말하는 만큼 예쁜 컵과 컵 홀더를 보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많아졌다.

아우어 베이커리 인기의 중심에도 페이즐리 로고의 일회용 컵과 봉투가 있다. 살구빛 예쁜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며칠을 보관하게 될 만큼 근사한 종이 봉투가 갖고 싶어서 아우어 베이커리를 방문한다. 블랙과 화이트의 대비, 볼드한 영문 폰트가 특징인 빈 브라더스의 머그잔과 컵 홀더 디자인은 시원스럽고 밝은 기운을 풍긴다. 커피를 마시는 순간 활동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고 한다. 한국적 레트로 감성의 프린츠는 물개 로고와 함께 컵 패키지에 개화기 시대의 모더니티를 담아 1970~80년대 이미지가 느껴지는 위트 있는 디자인을 그려냈다. 프린츠는 원두를 비롯해 맨투맨 후드 티셔츠, 포스터 등 레트로한 디자인의 MD 상품도 제작, 판매하고 있다.

무심코 받아든 테이크아웃 컵 하나가 말하고자 하는 수많은 브랜딩 메시지들. 커피 컵의 디자인은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감성마케팅으로 유명한 스타벅스의 여러 머그잔과 텀블러를 모으는 이들도 많으며, 독특한 디자인의 테이크아웃 컵을 모으는 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계절에 따라 컵, 컵 홀더 디자인을 바꾸는 카페도 있고, 두 개의 커피 컵을 겹쳐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컵을 한 개만 쓰거나, 무지 홀더를 사용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환경에는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감각적인 음료 컵을 쓰는 카페로 소문이 나서 얻어지는 홍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은 환경을 생각한 컵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잔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컵. 형형색색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에 녹아 있다. ☕

### 독특한 컵들



허스키 컵



커피박 컵



변온 컵



법랑 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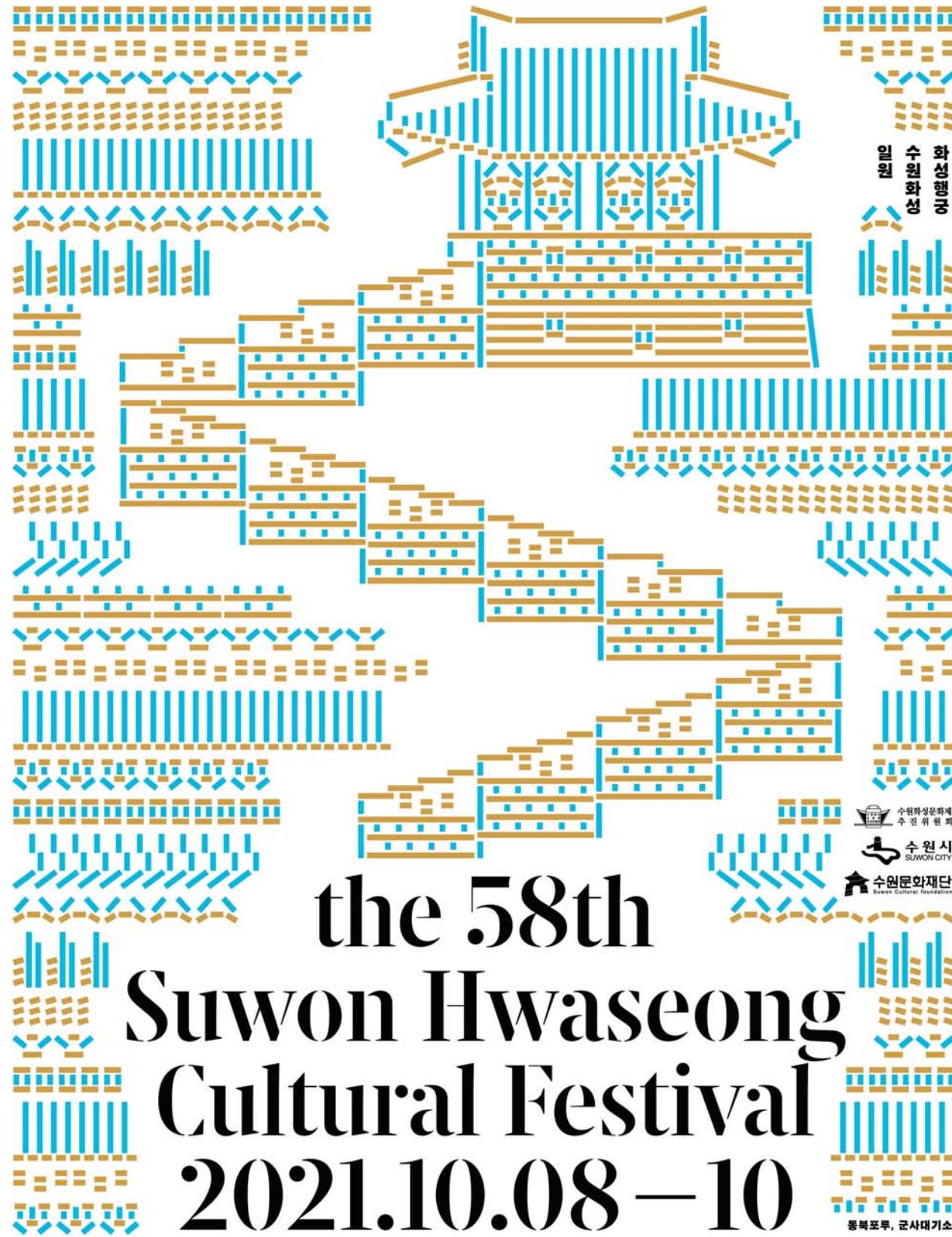
허스키 컵은 언뜻 플라스틱 같아 보이지만 커피 생두(husk) 껌질로 만든 친환경 컵이다. 세로 패턴의 세련된 조형미로 사랑받는 허스키 컵은 가볍고 잘 깨지지 않으며 빛깔도 모던하다.

커피 찌꺼기와 친환경 목재, 친환경 접착제로 만들며, 플라스틱 컵처럼 단단하고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다. 커피와 같은 컬러며, 카페폼(KAFFEEFORM)에서 만든 컵에서는 커피 향이 난다.

변온 컵, 매직 머그, 카멜레온 컵 등으로 불리며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의 온도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는 컵이다. 시온안료 같은 컬러며, 카페폼(KAFFEEFORM)에서 만든 컵들이 많다.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키친웨어인 크로우캐년의 법랑 스타일 제품들이 인기다. 친환경적인 에나멜 웨어 브랜드인 크로우캐년은 마블과 빈티지 라인으로 크게 나뉜다.

# 제58회 수원화성문화제



2021  
문화캘린더

봄	여름	가을	겨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수원 문화재 야행</li> <li>● 수원전통문화관 기획공연 &lt;2021 명인열전&gt;</li> <li>●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lt;미스테리우스&gt;</li> <li>● 창작 뮤지컬 &lt;행궁동 사람들&gt;</li> <li>● '뷰티풀 데이즈' &lt;어린이를 위한 스쿨마티네: 에스메의 여름&gt;</li> <li>● '뷰티풀 데이즈' &lt;한 여름 밤의 클래식 with 경기심포니카&gt;</li> <li>●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lt;수원화성 낭만소풍&gt;</li> <li>● 화성행궁 생생문화재 &lt;달달한 행궁로망스&gt;</li> <li>● 아트로 한바퀴</li> <li>● 비른샘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작업실 모아 운영 (연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수원재즈페스티벌</li> <li>● 수원연극축제</li> <li>●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li> <li>● 제58회 수원화성문화제</li> <li>●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lt;라흐마니노프&gt;</li> <li>●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lt;김용걸&amp;김보람의 Bolero&gt;</li> <li>● '뷰티풀 데이즈' &lt;실롱 드 아트리움&gt;</li> <li>●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 &lt;아리랑, 택견과 만나다&gt;</li> <li>●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lt;수원화성 낭만소풍&gt;</li> <li>● 화성행궁 생생문화재 &lt;정조실록 인문학 콘서트&gt;</li> <li>● 아트리움 감상체험학교 교육(5~8월)</li> <li>● 춤인문학 교육 (4~11월)</li> <li>●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에코부코 페스티벌</li> <li>● 슬기샘어린이도서관 트윈 스페이스 오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방방곡곡문화공감 &lt;상상(想像)-상상하는 우리춤&gt;</li> <li>●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lt;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gt;</li> <li>● '뷰티풀 데이즈' &lt;수험생을 위한 스쿨마티네: 코리안 집시&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야 콘서트</li> <li>● 2021 방방곡곡문화공감 &lt;상상(想像)-상상하는 우리춤&gt;</li> <li>● 2021 방방곡곡 문화공감 &lt;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gt;</li> <li>● '뷰티풀 데이즈'</li> <li>● 푸른지대창작센터 1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li> </ul>

1



2



3



4



####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제7대 대표이사 취임

수원문화재단은 제7대 대표이사에 길영배 전 수원시 권선구청장이 2월 9일 취임했다. 길영배 신임 대표이사는 1962년 출생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했다. 2013년 사무관 승진 후 수원시 권선1동장과 시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장으로 일했다. 2019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는 권선구청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임기는 2023년 2월 8일까지 2년이다. 길 대표이사는 '수원연극축제'를 경기상상캠퍼스로 무대를 옮겨 많은 시민이 자연과 함께 예술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대중화와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수원 문화재 애행'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인정받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원지역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공을 세웠다. 길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시민과 함께 수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술로 사람을 연결하는 공공미술 전시 오픈

수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람이 있다, 미술로 있다' 전시가 1월 4일부터 1월 32일까지 총 4팀의 전시로 진행되었다. <내가 희망이다>는 수원역 여성 노숙인 대상을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희망을 심어주는 12회 차의 미술 힐링 프로그램의 결과물 전시다. <도시재개발 현장과 어메니티 참여작가>는 세류동, 인계동, 지동 등 수원의 대규모 재개발지 현장의 풍경과 주민들의 모습, 이야기를 드로잉으로 꾸준히 기록해 온 결과물 전시, <서둔마을, 미술로 만나다>는 물펠트 공예, 캐리커처 그리기, 천연염색, 재봉과 자수 등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예품을 주민이 직접 만들어 지역의 경로당 등에 선물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결과물은 비대면 전시다. <토닥토닥 쓰담쓰담>은 한빛학교 장애인, 매산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초록쉼표 어르신이 주민작가가 되어 함께한 판화 및 도자 등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물 전시다.

#### 수원문화재단, 법정문화도시 선정 추진 간담회 개최

수원문화재단은 2월 19일 재단 회의실에서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수원시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수원시 이상수 문화예술과장, 수원문화재단 길영배 대표이사 등이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수원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도시문화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설립 ▲민관 협치 체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문화거버넌스 구축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3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이후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인문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수원문화재단,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수원문화재단이 15일 릴레이 캠페인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긴급 상황에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돌봄, 운전, 경비, 환경미화, 물류·운송 등의 필수 핵심서비스 종사자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길영배 대표이사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필수 노동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길 대표이는 송영완 수원시청소년재단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임숙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과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장을 지목했다.

5



6



7



8



9



10



####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서비스 운영 재개

#### 수원전통문화관 특별기획전

#### <도심 속 한옥>

#### 어린이작업실 '모야'로 놀러오세요!

수원문화재단은 3월부터 18개월 미만 영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책꾸러미 택배 서비스' 운영을 재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영아와 양육자 가정을 찾아가는 온택트 서비스다. 북스타트코리아 선정 그림책 2권, 에코백, 가이드북, 어린이도서관 추천도서목록이 담긴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택배로 발송한다. '북스타트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약 5개월간 320명의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1년 수원전통문화관 특별기획전시 제1회 <도심 속 한옥>이 2월부터 3월까지 수원전통문화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예술단체 '인프렌즈'의 작가 3인과 손을 잡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도심 속에 있는 한옥을 펜과 수채화로 그린 작품들로 구성했다. 수원에 있는 한옥뿐만 아니라 북촌, 대전 등 여러 지역에 있는 한옥 그림 작품을 선보였다.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이 1월 15일부터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운영을 개시한다. 지난해 [모야]는 새로운 것을 마주한 어린이의 질문 '뭐야?'에서 온 것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이 자유롭게 만드는 활동으로 확장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모야]는 어린이 전용 작업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어른들의 가르침, 지도 및 각종 커리큘럼이 배제되고, 참여 어린이 스스로 생각과 자율적인 창작 활동을 최대한 존중하여 운영된다. [모야]는 7세 이상 및 초등 전 학년 어린이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운영 시간 및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시작

#### 2021년 수원연극축제 10월 개최 확정

#### 비대면 관광콘텐츠

#### '수원화성의 비밀 2·3단' 출시

<학습개발연구모임 '곰곰>, <브릿지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등 2개 지원사업이 3월 24일부터 공모 관련 공고를 시작했다. <학습개발연구모임 '곰곰>은 비대면 예술교육 연구 모임을 지원하며, <브릿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재단 협력기관 및 소외·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4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이며, 4월 21일(수)에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학습개발연구모임 '곰곰'이 최대 4,000천 원, 브릿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최대 6,000천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24회를 맞이하는 수원연극축제가 올해는 조금 다른 일정에 진행된다. 기존 5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수원연극축제가 올해는 10월에 시민들을 찾아간다. 10월 1일(금)부터 3일(일)까지 3일 동안 경기상상캠퍼스 및 탑동 시민농장 두 곳에서 개최한다.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18편의 공연과 10편의 공연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관내 극단이 선보이는 '수원연극주간'이 한 주 앞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가을 출시돼 인기를 얻었던 비대면 관광프로그램 '수원화성의 비밀'이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온다. 3월 12일 '수원화성의 비밀 II, 정조이념록', '수원화성의 비밀 III, 마지막 임무'를 출시했다. '수원화성의 비밀'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원화성 일원에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로 수원화성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로 수원화성 곳곳을 방문하면서 실제 역사와 가상의 이야기를 결합한 미션(임무)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수원화성의 비밀 II, 정조이념록'은 수원전통문화관·화홍문·연무대·창룡문 일원에서, '수원화성의 비밀 III, 마지막 임무'는 화성행궁·수원화성박물관·남문시장·공방거리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SSAC

SOWON SIGHTSEEING ART CULTURE



## 싹 Suwon Sightseeing Art Culture

### 싹ssac트워크 회원이 되어주세요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관광의 '싹ssac'를 키우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문화 예술 기부 회원제도입니다.

문화예술 정기 기부를 통해 싹ssac트워크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작을 꿈꾸고 이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싹틔움 회원이 되시면 수원문화재단 <인인화락> 정기 배송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싹ssac트워크 회원 예우사항

주제	구분	후원액	특별대우	기본예우
개인	씨앗 회원(연간 회원)	월 3,000원 이상 / 월 30,000원 이상		
	물 회원(연간 회원)	월 10,000원 이상 / 연 100,000원 이상	연 1회 문화꾸러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카드 발송</li> <li>• 기부금 영수증 발행</li> <li>• 월간 뉴스레터 발송</li> <li>• &lt;인인화락&gt; 명단 게재</li> <li>• &lt;인인화락&gt; 발송</li> </ul>
기업	햇살 회원	1,000,000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인인화락&gt; 광고 게재</li> <li>• 기획공연 티켓 제공</li> <li>• 기부자 네이밍 지정</li> <li>• 기업 임직원을 위한 문화행사 기획</li> </ul>	

### 수원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싹틔움 회원



### 기부 신청 및 문의



ARS 기부 060-700-1199(통화당 2,000원)

온라인 기부 홈페이지 하단 싹ssac 배너 클릭

현금 기부 기업은행 166-020092-01-446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재)수원문화재단

전화 031-290-3514

홈페이지 give.swcf.or.kr

씨앗 회원							
강태석	김영은	김현주	박완열	이경남	이진석	정경선	최영옥
고서진	김종찬	박경홍	양태인	이규영	이효진	정서영	최진봉
권오경	김창석	박병규	엄주용	이선옥	임선화	조성면	최희섭
김민주	김현익	박상미	윤승기	이승운	이승운	전향이	황남숙
						차광수	황진주
							황승연

물 회원							
강남철	김남훈	김영식	방재영	윤봉기	이정원	정근호	채희락
권수정	김대규	박래현	배영애	이달호	임금자	조명희	홍순희
길영배	김민규	박수진	양지석	이정민	전호정	주용수	황연주

햇살 회원							
IBK기업은행(동수원지점)	수원이안과(이주현)	(주)신한은행	(주)월드프라임				
서둔동단체장협의회	(주)KT&G(경기본부)	(주)에이치모터스	회화침방				

## 『인인화락』 2020년 가을·겨울호를 읽고서



### 김희용

표지 그림이 매우 곱고 편안합니다. 코로나19 우울 극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준혁 교수는 화성 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특강 저술 강의 화성 현장에서 교육이 증명해줍니다. 참 재미있고 온고 지신입니다. 수원은 정조의 정신이 살아 살기 좋은 동네 마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수원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수원문화재야행은 재미나는 밤마실입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 봉사활동하러 다니고 있는데 화성에 오는 젊은이들 많아 늘 활기찹니다. 카페가 많아 참 좋고 역시 한옥 마을이 그들을 반깁니다. 그 현장을 <인인화락>에서 보고 읽을 수 있어 멋집니다. 발행 횟수 연 4회로 늘여 주시고 QR 코드 사용 현장감 넘치는 <인인화락> 고대해 봅니다. 맛깔스러운 편집제작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시는 일로 늘 행복하세요.

### 이윤주

수원에 오래 살아서 나름 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산책길> 내용에 '오빠생각' 관련된 내용을 보니 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 가게 한 둘이 아니네요. 이번 호가 코로나 내용이 많아서 관심 깊이 읽었습니다. 행궁동도 문 닫은 가게들이 제법 생겼는데, 문화예술이든, 자영업이든 빨리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 송인화

수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 가게 한둘이 아니네요. 이번 호가 코로나 내용이 많아서 관심 깊이 읽었습니다. 행궁동도 문 닫은 가게들이 이 제법 생겼는데, 문화예술이든, 자영업이든 빨리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 에스더

수원 매탄동에 사는 아이 둘의 워킹맘입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놀아줄지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늘 숙제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접한 <인인화락> 책에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네요. 특히 비대면 사업 부분을 보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기회가 되면 신청해 보고 싶네요. '투명 우산 만들기'나 '오감스쿨' 같은 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행궁동에서 한옥을 본 적은 있어서 책으로 보니 새삼 반갑고, 정겹네요. 빨리 코로나가 풀려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많이 알려주세요.

### 정경민

코로나19 때문에 전시회를 못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아내는 디자이너라 아무래도 전시회를 접할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시를 거의 안 하기도 하고, 선뜻 가기가 꺼려지다 보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리로 나온 예술가> 내용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도 좋았고, 실제로 보고 싶기도 하네요. 언택트 활동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노영훈

정조라면 리더처럼, 인터뷰 인상 깊었습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인인화락> 2021년 봄호가 새롭게 발행되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여름호에 실립니다. 선정된 독자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것들

살랑살랑 봄바람에, 따스한 봄볕에 마음도 간질간질해진다.  
재단 직원들이 독자들과 나누고픈 영화, 음악, 책을 소개한다.



1

### 일종의 고백

이영훈

몇 년 전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던 노래다. 순간 꽂혀버려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진솔하지만 쓸쓸한 노랫말은 싱어송라이터 이영훈의 독보적인 감성이다.

(기획홍보팀 김민주 주임)

3

###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 수오서재

76세에 시작해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일명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 그녀의 삶과 그림은 오랫동안 깊은 울림을 주며 늘 압버릇처럼 늦았다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슬기샘어린이도서관 이은정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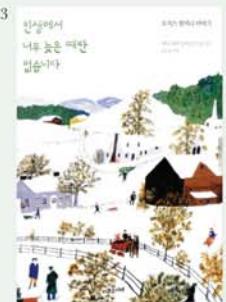
2

### 노팅 힐(Notting Hill)

유니버설 픽처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가 그의 '평범'한 일상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서로에게 그 '평범'이 참 멋있다.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사랑은 없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 한적한 공원에서 행복한,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두 남녀의 해피엔딩 장면 속으로 감성적인 OST 'SHE'가 흐른다… 그냥 명작이다.

(관광운영팀 고서진 대리)



5

###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영화사 진진

이제는 세상을 떠난 프랑스 영화감독 앙네스 바르다와 55살 어린 사진작가 JR. 두 사람이 포토트럭을 타고, 프랑스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만나 일상에 예술을 선물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잔잔하지만 깊이가 있고 사랑스럽다.

(화성콘텐츠팀 김성령 주임)

6

### 운디네

M&amp;M 인터내셔널

물의 정령 운디네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영화 속 전반적인 바흐의 서정적인 음악과 신비롭고 쓸쓸한 독일의 분위기는 계절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 더욱 몰입도가 높을 것 같다.

(예술교육팀 박수정 주임)